

부산교육 2010-231

2011년 대학입시 D-30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센터
<http://jinhak.pen.go.kr>

* 목 차 *

I. 201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2
II. 수능 영역별 마무리 학습전략	16
III. D-30 마무리 전략	48
IV. 수능 D-day 시기별 전략	61
V. 수능 시험일과 그 전후의 유의사항	67
VI. 수능 전후의 건강관리	95
VII. 수능 궁금증 Q&A	104
VIII. 수능 이후의 대입준비와 시간 관리	111
- 10월 이후 입시일정	132
IX. 참고자료	138

수능 D-30 파이널 전략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학습량과 오르지 않는 모의평가 성적, 빠르게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 때문에 조급한 마음만 들기도 할 때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수능 당일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올해 6월과 9월에 시행한 모의평가의 난이도와 출제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영역과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비해야만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 안에 성적을 대폭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남은 기간 효율적인 학습과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최종점검하고 수능 당일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학진학지원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선생님들과 입시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능 D-30 마무리 전략을 소개한다.



수능 D - 30 수험생의 과제 10

1.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감을 갖자.
2. 모든 활동은 수능 사이클에 맞추자.
3. 스스로 요약하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하자.
4. 공부 시간을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하자.
5. 모든 과목은 교과서로 정리하자.
6.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오답노트를 활용하자.
7.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모의고사로 감을 잃지 않도록 하자.
8. 탐구영역은 도표, 사진, 실험, 지도, 그림을 주의하자.
9. 수리영역은 기본개념을 중시하자.
10. 컨디션 조절은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I. 201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주요 특징】

9월 2일 평가원 모의고사의 응시자는 651,297명으로, 재학생은 562,877명, 졸업생은 88,420명으로 전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21,638명이 증가하여 올해 입시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에서 6월 모의고사와 함께 2011 수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학습시간 배정과 학습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 활용하여 남은 30여일 동안 최대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특징1. 9월 모의수능은 2010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6월 모의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 특징2. 예고한바 대로 EBS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된 문항이 60% 가량 출제되었으나, 고난도 문제는 EBS수능교재 밖에서 출제되었다.
- 특징3. 전반적으로 기존의 유형과 출제 경향을 이어갔으나,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여 상위권의 변별 Key로 삼았다.
- 특징4. 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표준점수 차이는 여전하였다.
- 최고점 아랍어가 제일 높아 제일 낮은 과목과 22점차!
- 특징5. 수리 "가"형 포기자가 늘고, "나"형 쓸림현상은 여전하였다.
- 특징6.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에서는 여전히 사회탐구는 사회문화, 과학탐구는 생물 I을 가장 선호했다.
- 특징7.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수리 영역이 상위권을 변별하는 키(key)이다.
- 특징8. 2011 수능에서는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징9. 수리 영역의 유형 간 교차 지원 시 유·불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1. 지원현황 분석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수능 결과 공통영역인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응시인원은 각각 648,144명(99.5%), 632,423명(97.1%), 647,489명(99.4%)으로 수험생 대부분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인 탐구영역의 경우 사탐은 사회문화(71.0%), 한국지리(61.7%), 한국 근·현대사(60.4%), 윤리(52.6%) 순으로, 과탐은 생물 I (84.3%), 화학 I (78.3%), 지학 I (65.6%), 물리 I (52.4%) 순으로 선택해 일반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 위주로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수리영역 유형별 응시과목

- 1) 총 651,297명의 응시인원 중 97.1%인 632,423명의 수험생이 수리영역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1)항의 응시자 중 "가"형은 22.3%, "나"형은 77.7%로 나타났다.

구 분			'가' 형				'나' 형	계
			미분과 격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계		
2010 학년도	6월 모의	인원	154,354	4,879	3,180	162,413	462,218	624,631
		비율(%)	(95.0)	(3.0)	(2.0)	(100.0) 26.0	74.0	100.0
	9월 모의	인원	125,261	3,804	1,482	130,547	480,560	611,107
		비율(%)	(96.0)	(2.9)	(1.1)	(100.0) 21.4	78.6	100.0
2011 학년도	6월 모의	인원	163,659	4,873	3,328	171,860	479,159	651,019
		비율(%)	(95.2)	(2.8)	(2.0)	(100.0) 26.4	73.6	100.0
	9월 모의	인원	134,756	4,557	1,410	140,723	491,700	632,423
		비율(%)	(95.8)	(3.2)	(1.0)	(100.0) 22.3	77.7	100.0

나. 사회탐구영역 유형별 응시과목

- 1) 탐구영역 응시자 643,081명 중 56.6%인 364,227명이 사회탐구를 응시하였다.
- 2) 1인당 선택과목수는 응시생의 71.4%인 260,026명이 4개 과목을 응시해 대부분의 학생이 가능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과목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에 비해 15.2%나 감소하였다.
- 3) 사회탐구 응시자 중 가장 많은 71.0%(258,639명)의 수험생이 사회문화를 응시하였고, 뒤 이어 한국지리(61.7%), 한국 근·현대사(60.4%), 윤리(52.6%)순으로 선택했다.
- 4)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 및 비율(%)

선택과목	2010학년도				2011년도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윤리	179,800	51.3	188,966	50.8	199,696	54.6	191,520	52.6
국사	60,439	17.3	69,704	18.7	58,328	16.0	54,790	15.0
한국 지리	237,525	67.8	248,246	66.7	233,971	64.0	224,786	61.7
세계 지리	47,020	13.4	49,094	13.2	54,374	14.9	53,712	14.7
경제 지리	54,727	15.6	61,375	16.5	40,514	11.1	44,526	12.2
근·현대사	220,915	63.1	233,487	62.7	240,480	65.8	220,110	60.4
세계사	34,780	9.9	38,785	10.4	40,368	11.1	37,799	10.4
법과 사회	58,316	16.6	63,735	17.1	59,437	16.3	58,789	16.1
정치	116,226	33.2	127,937	34.4	113,462	31.0	109,688	30.1
경제	74,366	21.2	84,837	22.8	68,513	18.7	63,086	17.3
사회·문화	257,421	73.5	280,470	75.4	258,440	70.7	258,639	71.0
사탐 응시자 수	350,251	-	372,113		365,460	-	364,227	

5) 사회탐구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수 및 비율(%)

구분	1과목선택		2과목선택		3과목선택		4과목선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858	0.5	31,546	8.7	70,797	19.4	260,026	71.4

다. 과학탐구영역 유형별 응시과목 조사결과

- 1) 탐구영역 응시자 643,081명 중 33.8%인 217,203명이 과학탐구를 응시하였다.
- 2) 1인당 선택 과목수별로는 4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이 73.3%인 159,268명으로 나타났다.
- 3) 과학탐구 응시자 중 가장 많은 84.3%(183,132명)의 수험생이 생물 I 을 응시하였고, 뒤이어 화학 I (78.3%), 지구과학 I (65.6%), 물리 I (52.4%) 순으로 선택했다.
- 4) 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 및 비율(%)

선택과목	2010학년도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물리I	112,753	55.8	119,086	56.6	120,977	56.0	113,768	52.4
화학I	171,283	84.8	181,015	86.1	173,698	80.3	169,988	78.3
생물I	180,050	89.2	189,282	90.0	184,219	85.2	183,132	84.3
지구과학I	134,736	66.7	139,845	66.5	138,909	64.2	142,383	65.6
물리II	20,141	10.0	21,409	10.2	24,105	11.1	23,602	10.9
화학II	53,593	26.5	59,175	28.1	57,172	26.4	49,486	22.8
생물II	85,433	42.3	91,391	43.4	89,652	41.5	83,463	38.4
지구과학II	22,861	11.3	23,611	11.2	25,539	11.8	28,608	13.2
과탐 응시자 수	201,939	-	210,360	-	216,206	-	217,203	-

5) 과학탐구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수 및 비율(%)

구분	1과목선택		2과목선택		3과목선택		4과목선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45	0.3	15,357	7.1	42,033	19.4	159,268	73.3

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주요 특징

◆ **특징1.** 2010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 언어 영역은, 2010수능보다는 어렵고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는데 시험의 전반적인 구성에서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문학 지문의 소재나 문학 작품의 장르 선정 등에서 6월 모의평가와 경향을 달리하였다. 비문학(읽기)에서 지문의 길이를 다양화하고 2~5문제를 출제한 것 등은 6월 모의평가와 같았으나, 비문학(읽기)에서 ‘언어’ 대신 ‘생활’ 관련 지문을 선정하고, ‘예술’ 지문에서는 ‘미술’ 소재가 아닌 ‘음악’ 소재를 선정한 것, 또한 복합 지문에서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엮고 극문학을 선정한 것 등은 6월 모의평가와 경향을 달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재 간 지문 길이를 다양하게 하고 그에 따라 문제 수도 조정하였다. 즉, 과학 제재는 지문의 길이를 짧게 하여 2문제를 출제하고, 예술 제재에서 5문제를 출제하였다.

비문학(읽기)의 ‘생활·언어’에서는 대체로 ‘언어’가 출제되어 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생활’ 지문을 출제하였다.

◎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모두 2010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가형과 나형 모두 2~4 문항의 고난도 문항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이끌었다.

지수 또는 로그의 식을 이용한 수학 외적 문항(가형, 나형 공통 6번), 도형을 이용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항(가형, 나형 공통 12번) 등은 매년 수능에서 출제되는 유형으로 또 다시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보기> 문항은 2010 수능에서는 가형(미분과 적분) 4문항, 나형 2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하게 가형(미분과 적분) 4문항, 나형 1문항이 출제되었다.

◎ 외국어(영어) 영역은 2010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6월 모의평가보다는 1문항이 줄어든 총 6문항이 출제되었으나,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빈칸 추론 문제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우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EBS수능교재에서 활용되지 않은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사려졌던 연결사 추론 문제가 다시 출제된 것과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그림 어휘 문제가 빠지고, 밑줄 어휘 문제가 출제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사회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는 2010수능과 비슷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기출 문제의 유형이 다시 활용되었으며(한국 근·현대사 20번, 세계사 3번), EBS수능교재에 실린 문항과 유사한 주제의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체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교과 내용과 연계한 문항과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 과학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2010수능보다 어렵고,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물리 I·II, 화학 I·II는 2010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고, 생물 I·II, 지구과학 I·II는 2010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EBS수능교재 및 강의의 문항이 변형되어 다수 출제되었으나, 접근 방식이나 묻는 내용을 달리하여 출제되었다.

기출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유형을 변형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으며, 제시된 자료와 묻는 소재가 참신한 신유형 문항이 일부 출제되었다.

◆ **특징2. 예고한 대로 EBS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된 문항이 60% 가량 출제되었으나, 고난도 문제는 EBS수능교재 밖에서 출제되었다.**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EBS수능교재를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특정한 교재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주로 EBS수능교재 밖에서 출제되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약간 변형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으며, 특히 자료나 도표를 활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영역별 연계방식은 아래와 같다.

◎ 언어영역 연계 방식 : 지문의 경우는 그대로 또는 재구성(축소·확대·변형)하여 가져오고, 지문을 연계한 경우 해당 문제도 연계하여 1~2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 수리영역 연계 방식 : 숫자나 형태를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 외국어영역 연계 방식 :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활용하고 유형을 바꾸어 출제하였다.

◎ 사회탐구 연계 방식 : EBS수능교재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묻는 방식만 달리하여 출제하거나 EBS수능교재에 실린 자료를 일부 변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과학탐구 연계 방식 : EBS수능교재에 실린 문항의 유형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EBS수능교재에 실린 문항을 일부분만 바꾸어 그대로 출제하였다.

◆ **특징3. 전반적으로 기존의 유형과 출제 경향을 이어갔으나,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여 상위권의 변별 Key로 삼았다.**

◎ 언어 영역에서는, 기존의 유형을 약간 변형하여 생각할 요소를 추가하거나 개념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까다롭게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 수리 영역에서는 범위의 값을 늘리는 방식과 주어진 그림을 이해하기가 까다롭게 출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고난도 유형(빈칸 추론)의 문항수와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하였다.

◎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시사적 또는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거나 자료와 접근 방식이 다른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특징4. 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표준점수 차이는 여전하였다.**

- **최고점 아랍어가 제일 높아 제일 낮은 과목과 22점차!**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선택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선택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독일어 I	64	일본어 I	66
프랑스어 I	64	러시아어 I	74
스페인어 I	64	아랍어 I	86
중국어 I	68	한문	70

9. 2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 수가 전체 지원자 중 40,368명 으로 아랍어의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응시자가 12,296명으로 <제2외국어/한문> 중 30.5%를 차지했다. 이는 아랍어가 표준점수가 잘 나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과목 중에서 아랍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64점으로 가장 낮아 아랍어와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22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9월 각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비교

과목		9월 모의평가 최고점(A)	6월 모의평가 최고점(B)	(A)-(B)
언어		133	134	-1
1수리	수리 "가"	157	146	11
	수리 "나"	145	147	-2
외국어(영어)		142	142	0
사회탐구	윤리	71	73	-2
	국사	74	75	-1
	한국지리	74	74	0
	세계지리	73	73	0
	경제지리	70	72	-2
	한국근·현대사	72	74	-2
	세계사	74	74	0
	법과사회	76	72	4
	정치	71	70	1
	경제	73	72	1
	사회문화	71	70	1
과학탐구	물리 I	75	78	-3
	화학 I	79	75	4
	생물 I	73	79	-6
	지구과학 I	73	79	-6
	물리 II	79	80	-1
	화학 II	76	78	-2
	생물 II	83	84	-1
	지구과학 II	82	79	3

◆ **특징5. 수리 "가"형 포기자 늘고, "나"형 쓸림현상 여전하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 응시자 비율이 77.7%로 수리 "가"형의 22.3%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리 "나"형 쓸림 현상이 여전하다. 수리영역은 시험 범위가 수학Ⅰ·수학Ⅱ, 선택과목인 미적분, 확률통계, 이산수학까지 있는 "가"형을 선택한 응시자가 22.3%(140,723명), 수학Ⅰ에서만 출제되는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이 77.7%(491,700명)로 "나"형 쓸림 현상은 지난 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처럼 여전했다. 전년도 수능과 비교하면 "가"형 응시자가 전년도 22.9%에서 0.6% 준 22.3%로 학습 부담이 많은 수리 "가"형을 포기하고, 수리 "나"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징6. 탐구영역 선택과목 사회탐구는 사회문화, 과학탐구는 생물Ⅰ을 가장 선호했다.**

최대 4과목까지 선택 가능한 사회탐구는 사회문화를 71.0%가 선택했고 이어 한국지리(61.7%), 한국근·현대사(60.4%), 윤리, 정치, 경제, 법과사회, 국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세계사(10.4%)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는 생물Ⅰ(84.3%), 화학Ⅰ(78.3%), 지구과학Ⅰ, 물리Ⅰ, 생물Ⅱ, 화학Ⅱ, 지구과학Ⅱ, 물리Ⅱ(10.0%)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과학탐구는 특히 생물Ⅰ과 화학Ⅰ의 선호도가 높다. 2008학년도까지 화학Ⅰ의 선택이 높았으나 2009학년도부터 생물Ⅰ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학습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멀리는 의치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대학의 진학에 이들 과목 선택이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과학탐구에서 4과목을 모두 선택한 수험생이 각각 71.4%, 73.3%였다.

◆ **특징7.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수리 영역이 상위권을 변별하는 키(key)이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리의 중요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수리영역("가" 157점 / "나"형 145점)이 언어(133점)와 외국어

(142점)에 비해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지난 수능에 비해 특히 어려웠던 수리 영역은 이번 시험에서도 수리 "가"형, "나"형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변별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리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해지면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수리 영역에서 고난도 문항을 얼마나 잘 풀어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 **특징8. 2011 수능에서는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 수능과 두 차례 걸쳐 치러진 모의평가를 살펴보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신유형이나 고난도 유형을 영역별로 다수 출제하면서 2010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하였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우나 2010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2011 수능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으나, 영역에 따라서 다소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문제 유형 또한 영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징9. 수리 영역의 유형 간 교차 지원 시 유불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자연 계열이면서 '나' 형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수리 영역의 가감점 유·불리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2011 수능에서 수리 '가'형의 응시자는 151,889명(21.3%)으로, 2010 수능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자연 계열 중위권 학생들이 주로 수리 '나'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볼 때, 수리 '나' 형에 응시한 자연 계열 학생들이 한 등급 이상의 등급 상승을 노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 '가' 형을 '나' 형으로 바꾸게 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자연 계열 수험생의 경우, 수리

‘나’ 형 선택으로 인해 주요 대학 자연 계열 모집 단위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리 ‘가’ 형과 ‘나’ 형에서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평가원의 예고와 같이 유형 간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두 유형 간의 표준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을 예상한다면,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수리 ‘가’ 형 대신 ‘나’ 형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은 자연 계열 학과로 교차 지원을 희망할 시, 다른 해보다 유리해지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연도별 수능 영역별 응시자 현황(점수 기준)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탐구			전체	사탐 - 수리 ‘나’ 형	과탐 - 수리 ‘가’ 형
		‘가’ 형	‘나’ 형		사회	과학	직업			
2011 수능	711,313	151,889	515,202	708,783	419,812	241,486	44,177	712,227	-95,390	89,597
	99.9%	21.3%	72.4%	99.5%	58.9%	33.9%	6.2%	100.0%		
2010 수능	676,953	143,505	492,886	675,534	400,713	222,758	49,735	677,829	-92,173	79,253
	99.9%	21.2%	72.7%	99.7%	59.15%	32.9%	7.3%	100.0%		
2009 수능	557,483	126,687	419,990	586,263	348,473	196,308	38,899	588,282	-71,517	69,621
	99.9%	21.5%	71.4%	99.7%	59.2%	33.4%	6.6%	100.0%		
2008 수능	583,733	128,286	409,409	582,953	341,529	202,186	36,893	584,890	-67,880	73,900
	99.8%	21.9%	70.0%	99.7%	58.86%	34.86%	6.4%	100.0%		

3.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	언어			수리 '가'형			수리 '나'형			외국어(영어)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1	128	94	4.40	134	80	4.48	137	90	4.91	133	91	4.14
2	123	88	6.67	125	71	6.96	129	78	7.19	127	83	7.39
3	116	81	12.73	116	60	12.08	118	61	11.54	118	72	11.87
4	109	72	16.26	106	51	17.24	103	42	17.05	107	58	16.87
5	99	61	20.56	95	41	20.26	88	26	20.65	93	41	20.38
6	87	47	16.34	84	30	16.04	82	18	17.57	81	29	16.68
7	68	31	12.46	73	20	12.16	79	12	10.14	74	21	11.97
8	59	19	6.99	66	15	7.08	75	8	7.57	70	17	6.74
9	59미만	19미만	3.49	66미만	15미만	3.71	75미만	8미만	3.39	70미만	17미만	3.97

등급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1	69	45	4.79	70	44	4.56	68	44	4.44	68	43	4.55
2	65	39	6.84	65	39	8.13	63	39	7.67	63	40	8.10
3	59	30	12.08	59	32	10.60	59	33	11.18	59	34	11.58
4	52	24	16.47	51	26	16.73	53	28	16.96	53	28	16.92
5	46	19	20.78	45	18	23.72	46	23	22.61	46	19	20.27
6	42	13	16.66	41	12	17.20	42	17	14.61	41	14	16.45
7	38	10	14.39	40	9	8.06	37	13	13.11	37	9	13.48
8	36	7	4.02	36	6	8.75	34	9	5.50	35	7	5.38
9	36미만	7미만	3.98	36미만	6미만	2.24	34미만	9미만	3.93	35미만	7미만	3.27

등급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1	66	43	4.09	68	46	5.54	70	45	4.09	68	45	6.20
2	63	39	8.32	64	39	7.67	65	39	7.53	64	39	5.89
3	59	35	11.63	59	32	11.58	58	30	12.58	59	35	11.37
4	53	30	20.02	52	28	16.80	51	23	17.55	52	27	16.69
5	47	25	20.07	45	22	23.29	45	17	19.76	46	20	20.04
6	42	20	14.60	41	16	12.44	42	13	18.16	41	14	21.42
7	36	12	12.42	38	11	12.86	39	9	11.25	38	11	10.95
8	32	8	5.05	36	7	6.83	37	6	6.48	36	7	3.51
9	32미만	8미만	3.76	36미만	7미만	3.00	37미만	6미만	2.60	36미만	7미만	3.93

등급	정치			경제			사회문화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1	64	46	6.48	68	43	4.34	64	47	5.42
2	61	41	8.17	64	39	7.42	62	43	7.17
3	59	36	10.08	58	33	15.10	58	38	12.89
4	54	30	17.89	52	27	17.93	54	33	16.97
5	49	22	17.46	46	20	18.54	49	26	19.33
6	41	15	18.21	41	14	15.06	42	20	15.82
7	35	10	13.80	37	11	12.75	34	15	13.95
8	32	7	4.97	35	7	5.46	32	9	5.34
9	32미만	7미만	2.94	35미만	7미만	3.41	32미만	9미만	3.12

등급	물리1			화학1			생물1			지구과학1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1	70	41	4.37	70	43	4.56	68	43	4.21	69	46	4.12
2	65	36	6.68	65	39	6.59	64	38	7.78	64	42	7.64
3	58	30	12.98	58	33	13.41	59	33	11.65	58	37	12.56
4	51	24	16.25	51	26	18.38	52	27	17.99	53	32	16.03
5	45	18	21.86	46	20	19.29	46	20	18.58	47	24	19.71
6	42	11	16.22	42	15	17.14	41	16	19.77	41	18	19.05
7	39	9	11.00	39	11	11.27	38	12	10.11	38	13	10.85
8	36	6	8.61	36	8	6.31	36	8	6.47	34	9	6.82
9	36미만	6미만	2.02	36미만	8미만	3.07	36미만	8미만	3.42	34미만	9미만	3.22

등급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2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표준점수	원점수	도수 비율(%)
1	72	42	4.55	69	42	5.76	70	42	4.10	72	47	4.78
2	66	37	7.10	64	37	6.66	64	37	7.94	65	42	6.34
3	56	32	12.13	58	28	12.25	58	32	11.88	56	33	13.01
4	49	22	18.62	51	20	17.10	50	26	19.77	50	24	17.67
5	45	16	19.76	45	18	21.03	45	20	20.03	46	18	18.84
6	43	12	17.04	41	12	18.92	42	14	14.30	43	13	19.78
7	40	9	12.32	38	10	13.17	39	11	12.79	41	9	8.76
8	38	7	5.04	37	5	2.17	36	8	6.64	38	6	7.59
9	38미만	7미만	3.45	37미만	5미만	2.96	36미만	8미만	2.52	38미만	6미만	3.23

II. 수능 영역별 마무리 학습전략

1. 언어 영역

언어영역은 1교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나머지 시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언어영역은 과목 특성상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수능 전날까지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해 두면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영역은 공부를 하는 시간과 성적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마무리를 앞두고 학생들이 언어영역을 소홀히 함으로 실제 수능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1회 혹은 2일에 1회씩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등 최소한의 공부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2010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경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틀린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EBS 교재의 낯선 작품들을 장르별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작가, 작품만 한정해서 공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언어영역의 마무리 단계는 학습량에 집착하기 보다는 자기 반성적 학습을 해야 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남은 기간 시간 안배에 대한 감을 익히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틀린 문제에서 찾아 대처하고 시험 중 자주 저지르는 실수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마무리 학습 계획 세워야 ... 실전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실천이 어려워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무리 학습 계획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그리고 계획의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월요일 — 문학 제재 공부'라는 식의 막연한 계획은 그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다음의 예(例)를 참고하여 학습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요 일	시 간	학 습 분 야	교 재 및 자 료	세 부 학 습 방 향
월요일	20:00~21:30	고전 문학 - 시조	- EBS 수능 교재 ...인터넷 수능 시가 문학	- 시조 작품 개괄적 정리 - 사설시조 작품 세부 분석
수요일	21:00~22:00	비문학 - 예술	EBS 수능 교재 ...인터넷 수능 비문학	- 예술 제재 독해 연습 - 기출 문제 유형 점검
∴	∴	∴	∴	∴
일요일	08:00~10:00	실전 훈련	EBS 수능 교재 ... Final 실전 모의고사	- 제1회 문제 풀이 - 오답 노트 작성

▶ 언어 영역, 시간과의 싸움!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훈련하
면서 시간 안배 능력을 기르자.

흔히들 언어 영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80분 안에 50문항을 완벽하게 풀어내기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언어 영역에서는 보통 10개의 지문이 제시되고, 문항에 따라서는 <보기> 형태의 자료도 적지 않게 제시된다. 그런데 이해가 어려운 특정 지문이나 문제에 집착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뒷부분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일 경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한 후 여유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다.

또 듣기 평가 시간(약 13분)과 지문 독해 시간(각 지문당 약 4~5분)을 고려할 때, 언어 영역에서 듣기 5문항(듣기 평가 시간 동안에 해결)을 제외한 45문항의 문항당 풀이 시간은 대략 50초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수치상의 평균값일 뿐이다. 2분 정도 숙고해야 풀리는 문항도 있고, 단 10초 만에 풀리는 문항도 있으므로 실전 훈련을 통해 문제 풀이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은 수능 대비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하겠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언어 영역 1세트를 풀어 보는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답 정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동안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나 참고서의 문제 중 자신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평소에 오답 정리 노트를 만들어 왔다면 더할 나위 업이 좋겠지만 지금은 굳이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빨간 펜이나 형광펜을 잡고 틀렸던 문제에 밑줄을 그으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환기한다, 오답 정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 어휘 · 어법 ... 교과서를 통해 단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라!

최근 어휘 · 어법 관련 문제가 쓰기와 읽기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어휘의 문맥적 의미, 관용표현, 다의어, 동의어, 높임법, 시제, 조사의 사용, 단어의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점검해 두어야 한다. 어휘 · 어법은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국어(상) 교과서의 4단원 '바른 말 좋은 글'의 주요 내용, '부록'에 실려 있는 '한글맞춤법'을 통독해야 한다. 낯선 어휘들의 의미를 다시 찾고 암기하고 적용해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다. 실전 연습을 하는 틈틈이 모르는 어휘들을 발견하면 곧 해결하고, 또 어휘 문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을 모색해 두는 것이 좋다. 대개 주어진 보기나 제시문의 문맥적 흐름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듣기 ... 수능 당일 시험 전체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대비하라 !

수능 시험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언어 영역 듣기 문제이다. 이 듣기 문제가 수능 당일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듣기 문제를 풀고 난 후의 감(感)이 언

어 영역뿐 아니라 2교시 이후의 다른 영역에 임하는 컨디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듣기 평가 훈련을 통해 언어 영역 듣기만큼은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듣기 연습은 수능 기출 문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일주일마다 실천형 듣기 문제 5회 분량(총 25문항) 정도 연습해 봄으로 듣기 평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익힘은 물론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쓰기 ... 기출 문제 유형과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취약 유형을 집중 공략하라!

쓰기는 출제 패턴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출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학습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쓰기의 경우는 개인들마다 취약성을 보이는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확연히 드러나는 영역이다. 가령, 어떤 문제 유형은 문제를 대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주 틀리게 마련이고, 문제 풀이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런 만큼 쓰기는 오답노트를 바탕으로 마무리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취약 유형에 대한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통해 같은 유형을 또다시 틀리는 우(愚)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쓰기에서는 제시되는 조건이나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수능 및 모의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나 자료 형태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둔다면 실제 수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문학 ... 갈래별 감상 원리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작품 분석하는 연습 지속하라!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낯선 작품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낯선 문학을 접근할 때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려 하거나, 세부 구절의 의미에 집착하기보다는 해당 작품이 말하는 핵심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다. 특히 EBS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 중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작품을 체

크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되,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대시와 고전시가의 복합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에 대비 제재별, 주제별, 시대별, 장르별로 복합되어 있는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그동안 공부한 작품을 훑어보면서 소재와 주제가 유사한 작품들을 따로 묶어 감상해 나가도록 한다.

▶ 비문학 ... 독해의 감(減)을 잃지 않도록 하고 폭넓게 지문을 읽도록 해야 한다!

언어 영역 성적의 큰 변수를 차지하는 지문 독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한 지문 분량의 글을 정독하며 지문을 읽는 감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 비문학 독해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답지나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다른 상황 및 조건에 적용해 보는 문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어렵게 느껴지는 제재가 있다면 하루에 2-3개 지문을 택해 문제 풀이 감각을 늘리고 자신감도 충전해야 한다.

■ **결점 보완 전략**

언어 영역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문제풀이 자세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시험 당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시간 안배를 훈련하라

그 동안의 모의고사에서 언어영역 풀이에 시간이 모자란 일이 많았던 수험생은 남은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연습용 OMR 답안지가 있는 실전모의고사 문제로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가능하면 80분 안에

다 풀고 10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간 소요가 가장 큰 것은 지문 읽기인데, 지문을 천천히 읽는다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대의와 주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적정 속도로 지문을 읽어 내려 가도록 해야 한다.

▶ 감각과 직관을 중시하라

많은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처음에 맞는 답을 골랐다가 검토 과정에서 고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처음 답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처음 풀이할 때는 자신의 언어 감각과 직관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검토할 때는 분석적 방법으로 읽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질문 사항 외의 요소가 개입되거나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 따라서 정보나 구체적인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대의나 주제, 어조나 분위기, 정서와 태도 등을 묻는 문항의 경우 처음 인상을 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본 후 고쳐서 틀린 문항을 살펴보면, 고치게 된 그 심리적 갈등 과정을 통계적으로 냉철히 분석해보고 다음 문제풀이에 참고하는 훈련을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 예단과 비약을 피하라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평범한 문제를 자주 틀리는 학생은 문제 풀이를 할 때 주어진 글 안에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항을 찾아내고 유추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문 외적인 정보들에 엉뚱하게 끌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 풀이를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상식보다는 철저히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예단과 비약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문과 문항을 끝까지 진지하게 정확하게 읽어보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가능하다면 지문부터 읽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노트를 활용하라

지금까지 치른 각종 시험지나 참고서, 문제집 등에서 틀렸던 문제를 살펴보고 자신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의 유형과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하고 정리한다. 틀리기 쉬운 어법이나 쓰기 관련 기출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심리적 안정감을 길러라

1교시 시작 전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심지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극도로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글을 읽어도 대의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없다. 시험 시작 전에 남보다 자신을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체로 성적이 좋다. 앞으로 남은 몇 번 모의고사에서 1교시 시작 전에 차분하게 자신을 가라앉히며 결의를 다지는 훈련을 반복하면 실제시험에서 도움이 된다. 시험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주어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시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수대별 학습 전략**

(1) **상위권(1~2등급) : 상위권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문항 및 지문에 대비해야...**

최근 추세를 보면, 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감안하여 제재별로 고난도 문항을 안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수능을 30여 일 정도 남겨 둔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 풀이 감각 유지 및 고득점을 위해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언어 영역의 경우 고난도 문항 유형이 특별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모의고사 문항별 정답률을 통해 분석해 보면 대체로 어휘나 어법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편이다. 아울러 읽기 제재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학에서는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비문학에서는 과학이나 인문 제재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 출제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집중 학습이 필요하다.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수능에서 절대로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다. 검증된 집필진이 새로 출제한 고난도 문제로 적용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문학에서는 제시된 관점에 따라 작품 해석하기,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작품의 내용을 고려해 다른 장르로 전환하기 등에서 상위권 내에서의 승부가 갈린다. 비문학에서는 생략돼 있는 전제 추리하기, 관점에 따라 비판하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등을 주목해야 한다. ‘출제자의 눈’을 갖지 못하면 절대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중위권(3~4등급) : 자신의 취약 유형에 대한 보충·심화 학습에 주안점 두어야...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서 자주 틀리는 문항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모의고사에서 자주 틀렸던 유형은 실제 수능에서 또 틀리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이제 수능이 30여 일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3~4등급에 해당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자신이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에 대한 보충·심화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항을 정리해 보면, 비슷한 유형끼리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모의고사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문학에서는 자료를 해석하여 작품을 분석하거나 관련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는 유형을 자주 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문학에서는 정보를 분석·종합하여 적용하거나 추론하는 유형에 약점을 보였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은 30여 일 동안 자신의 취약 유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충·심화 학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위권 학생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낯선 작품만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제자가 어떤 원리에 따라 문항을 출제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함정을 파며 이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을 꿰뚫는 눈을 갖추어야만 한다.

- ① 틀린 문제를 다 모아라.
 - 틀린 원인을 분석하라. 예를 들어 실수인지, 이해력 부족인지, 유형을 몰라서 인지.
 - 모르면 알 때까지 그 문제를 완벽히 정복하는 연습을 해라.
- ② 수능 기출 작품도 한 번 보자.
 - 수능에 이미 출제된 문제들은 엄선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 단 해설에 의존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푼 뒤에 반성해라.

(3) 하위권(5등급 이하) :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에게 충실해야 ...

자신감을 가져라.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언어영역은 우리말과 글로 나온다. 일단 아는 문제가 많은 영역부터 하나씩 정리 해가자. 나는 고전문학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서도 틀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정리 해가면 최소한 고전문학은 다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문장에만 집착하다가 지문 전체의 흐름을 놓치거나 앞부분의 내용을 망각해 다시 읽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글을 읽어 가야하며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수능 기출문제의 비문학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글의 흐름 파악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사실적 사고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특히 약하다. 근본적 독해력을 키우지 않은 채 무작정 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것은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맥을 통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문장과 문단 및 글의 구조 파악하기, 전제나 이유 추리하기, 다른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하기 등의 문제를 따로 모아 사고유형별로 집중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문을 대상으로 집중 연습하며 해결전략을 익히고 점차 장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또박 또박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듣기도 그렇고 수업도 마찬가지다)
 - 모르는 지문의 어휘부터 공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고 다시 생각하라
- ②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교재)부터 다시 보라.
 - 몰랐던 것이 많다고 짜증 내지 말고 하나라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자.
- ③ 평소에 자신 있는 부분부터 확실히 풀어라. 실전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은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맞는 지름길이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영역	수량	교재명
언어영역	10권	<수능특강> 언어영역 <FM 라디오> 고교 국어듣기 <인터넷수능> 시문학 <인터넷수능> 소설문학 <인터넷수능> 수필 & 극문학 <인터넷수능> 비문학 <인터넷수능> 쓰기 & 어휘·어법 <인터넷수능 고득점> 언어영역 300제 <10주 완성 수능특강> 언어영역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언어영역

2. 수리 영역

새로운 유형이나 어려운 문제보다는 출제빈도가 높고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필요하다. 기본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주관식 문제도 결코 어렵지 않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하위권 학생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단원별로 하루에 1-2문제씩이라도 풀어보면서 계산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교과서의 정의, 공식들을 예제 중심으로 개념은 꼭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를 반복해 풀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복합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두세 문항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년 실제 수능에서는 그 해 9월 모의평가의 문항 유형이나 난이도에 맞춰 출제되어 왔으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게 2011 수능이 출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 노트를 통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오답 노트를 통해 틀린 문항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1 수능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비추어 볼 때, 예년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묻는 쉬운 수능의 경향에서 벗어나 개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 개념을 결합시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위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항들에 대한 오답 노트를 통해 개념의 원리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형태의 학습 방법보다는 용어 또는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 준비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미리 정리해 둔 오답 노트나 요약 노트 등을 보며 최종 점검을 해야 할 시기다. 특히 상위권의 경우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며 고득점을 노리고, 중위권은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실수를 줄이는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권은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기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 **수능시험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 EBS 교재로 문제 유형을 익히자.**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기출 문항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EBS 교재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한 유형의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수능시험과 9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신이 약한 단원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확히 아는 단원과 모르는 단원을 구분하여 취약한 단원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수능시험은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능시험과 수능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 출제된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수준별 학습 대책을 세우자.**

6월 모의평가 보다는 쉬웠지만 2010학년도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이는 평균점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변별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각 점수대별로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유형을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해야 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와 같은 형태로 출제되었을 때 조건에 따라 점수의 변동 폭이 가장 큰 학생들이 중위권이다. 전체적으로 문항이 쉬워 보이면서도 풀이 전략을 세우려면 힘든 문항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기본 개념을 다지면서 문항들을 풀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수능 기출 문제집으로 유형을 파악한 후 유형별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위권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출 문항 유형을 많이 내포하는 출제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학습 방법이 좋다.

▶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에 풀리지 않아 해설을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나중에 다시 풀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하는데, 이는 사람마다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나 문제 구성 방식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틀렸던 문제들을 체크해 보고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한다. 특정한 내용의 단원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그 단원을 좀 더 공부하고, 특정 행동 영역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그 행동 영역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평소와 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 보는 문제의 유형이나 아주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 수험생 자신의 지나친 긴장감으로 인해 당황하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30여 일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30일 밖에 안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 30일이나 남아 있다는 것과 경쟁자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불안감을 떨쳐 버리는 것이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시험지 구성상 전반부에 대부분 쉬운 문제가 배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여 당혹감으로 시험 시간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 꾸준히 하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리 영역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한다. 정답을 맞히더라도 한 문제를 푸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약 한 달을 앞두고는 평소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문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수능시험 날 시간 안배를 잘하기 위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대체로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1~10번 문제를 빨리 풀고, 18~30번 문제들부터 먼저 풀자. 이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비교적 어려운 11~17번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상위권 학생들은 1~30번까지를 순서대로 풀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난이도 문제는 건너뛰고 다음 문제를 풀어라. 이후 약 4~5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심리적 여유를 갖고 건너뛰었던 문제를 풀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 그래도 교과서다. 마지막 개념 정리는 교과서로

문제 풀이에 치중하다 보면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불안정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응용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여 일 앞둔 상황에서는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점수대별 학습

▶ 상위권(1~2등급): 다양한 문항을 많이 풀어 보면서 약점 보완과 실수를 줄이자.

수리 영역은 언어 영역과 더불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수리 영역은 4점 배점인 문항이 많아 한 문항에서 실수라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성적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평소에 다양한 문제 해결 문항을 많이 풀어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착각이나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올해의 시험들을 비추어 볼 때 쉬운 문항은 무척 쉽고,

어려운 문항은 무척 어려웠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올해 수능 시험 또한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기 쉬운 ‘순열과 조합’, ‘확률분포와 통계적 추정’,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 단원은 특히 좀 더 세심히 복습해 둘 필요가 있겠다.

▶ **중위권(3~4등급) :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자.**

지난 몇 년 간 수리 영역의 계열 간 교차 지원 허용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이 수리 영역의 ‘가’ 형을 포기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난도의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수능 출제 경향이므로 중위권은 최고난도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집중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수능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았던 단원인 수학 I의 ‘행렬’, ‘수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복습하되,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기 쉬운 수학 I의 ‘순열과 조합’, ‘확률분포와 통계적 추정’과 수학 II의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에 관련된 다양한 문항을 접해 봄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위권(5등급이하) : 쉬운 단원 및 개념은 반드시 정복하자.**

최근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은 상위권끼리, 하위권은 하위권끼리 변별력을 갖도록 시험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난도의 문항보다는 어려운 난도의 문항과 쉬운 난도의 문항이 각각 늘어나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하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단원보다는 쉬운 단원 중심으로 복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

수학 I의 ‘지수와 로그의 계산’, ‘행렬의 연산’, ‘수열의 극한’,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 등의 기본 공식은 반드시 익혀 두고, 다른 단원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쉬운 단원인 수학 I의 ‘지수와 로그’, ‘행렬’, ‘수열’, 수학 II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집중적으로 복습하도록 한다.

또한, 하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단원을 학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모르는 문항도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취약점 보완책

▶ 계산이 자주 틀린다면 = 실수가 잦은 학생은 자신의 연습 부족을 반성하며 학습 습관을 냉정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계산이 자주 틀리는 학생은 평소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완전하게 답을 구할 때까지는 절대로 답을 보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늘 시간이 부족하다면 = 실전 문제를 구해 시간을 정해 놓고 풀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 중에는 잘 모르는 문제에 너무 시간을 끌다가 아는 문제까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처음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 한다.

▶ 문제를 보고 두렵다면 = 실전모의고사로 풀이 연습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감이 없어 위축되면 아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쉬운 문제를 끝까지 혼자서 풀면서 성취감을 쌓게 되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수리탐구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 다른 취약 과목에 집중하다 보면 며칠씩 수리탐구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계산도 자주 틀리게 된다. 가능하다면 전 단원의 문제를 매일 몇 문제씩 계속해서 풀어 전반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영역	수량	교재명
수리영역	‘가’형 17권	<수능특강> 수학 I <수능특강> 수학 II <인터넷수능> 수학 I 수열/수열의 극한 <인터넷수능> 수학 I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인터넷수능> 수학 I 확률/통계 <인터넷수능> 수학 II 방정식과 부등식/이차곡선 <인터넷수능>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다항함수의 적분법 <인터넷수능> 수학 II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벡터 <인터넷수능 고득점> 수리영역 수학 I 300제 <인터넷수능 고득점> 수리영역 수학 II 200제 <인터넷수능 고득점> 수리영역 미분과 적분 50제 (PDF) <인터넷수능 고득점> 수리영역 확률과 통계 50제 (PDF) <인터넷수능 고득점> 수리영역 이산수학 50제 (PDF) <10주완성 수능특강> 수리영역 수학 I <10주완성 수능특강> 수리영역 수학 II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리영역 ‘가’형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리영역 ‘나’형
	‘나’형 7권	<수능특강> 수학 I <인터넷수능> 수학 I 수열/수열의 극한 <인터넷수능> 수학 I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인터넷수능> 수학 I 확률/통계 <인터넷수능 고득점> 수리영역 수학 I 300제 <10주완성 수능특강> 수리영역 수학 I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리영역 ‘나’형

3. 외국어(영어) 영역

외국어 영역은 단시일 내에 많은 성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말고 감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어휘와 구문을 파악하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독해 실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테이프를 들으며 듣기 문제에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교과서나 참고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훑어보면서 재정리 하는 것이 좋다. 제2외국어는 그동안 봐왔던 교과서와 문제집을 최종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익혀두도록 한다.

상위권 학생들은 기존 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풀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에서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의 유형이 나왔던 만큼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집중적으로 모의평가의 유형이 약간씩 변형되어 나올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기존 기출 문제를 통해 자신의 어휘, 구문 파악 능력을 측정하여 수능에 대비하자.

기출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010 수능에 나온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듯이 평소의 어휘, 구문 파악 능력만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과거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문항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하여야겠다.

▶ 필수적인 문법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자.

문법 문제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문법 사항들은 꼭 숙지하여야 한다.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법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문법 사항은 항상 체크를 하여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문법 문제를 무조건 기피하여 포기하지 말고 평소 주요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 점수 획득에 도움을 주도록 실전에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어휘 추론 능력을 기르자.

어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어휘의 정확한 사용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꾸준한 훈련을 한다면 점수 획득의 가능성도 크다 할 수 있겠다. 즉, 문단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빈칸 부분의 어휘나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림을 보고 문맥에서 적절하게 쓰인 어휘를 고르는 문제와 같이, 다소 생소한 소재의 그림과 내용을 다룬 문제와 전문성이 짙은 글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배점이 높은 만큼 긴장하여 지레 겁먹고 문제 자체를 놓치기 보다는 문맥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면 어휘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 고난도의 장문에 대비하자.

장문 문제는 유형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만큼 지문의 길이가 길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뒤에 문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하여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칭 추론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지만 지문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의 장문에 대비하여 다양한 장문을 빨리 풀어보는 훈련을 한다면 점수 획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글을 읽고, 요지와 결론을 추론해 내는 사고를 기르자.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항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따라서 단순한 독해에서 그치지 않고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이러한 지문을 자주 접하도록 하여 실전에서 고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요즘 많이 출제되는 과학, 사회 문제와 인문, 예술, 철학, 역사 등의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접하여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한다.

▶ 실전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라.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제를 70분에 풀도록 되어 있다. 듣기는 17문항으로 20분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3문항의 독해 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이는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 문제당 1.3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실전에서 독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쉽게 답을 구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러므로 듣기 문제부터 한 세트를 풀되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실전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간 안배 훈련을 일주일에 2~3번 해 두는 것이 좋다.

▶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라.

지금껏 정리한 오답 노트를 통해 자신이 틀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실전에서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외국어 영역의 유형은 거의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1~2문제 정도일 확률이 높으므로 지금껏 풀었던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 보고 보완해 나갈 수 있고 또한 자주 출제되었던 문법이나 어휘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듣기도 전략적으로 하라.

듣기, 말하기 영역은 다른 읽기, 쓰기 영역에 비해 적절한 전략을 구상한다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므로 자신만의 듣기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듣기 연습을 할 때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통해 듣기를 하여 최대한 실전에 맞는 환경으로 공부를 하고 오답노트를 통해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듣는 순간에는 그 문제에 집중하여 듣고 듣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는 용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여 듣는 순간 중점이 되는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듣기 또한 연습한 만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정보를 종합하는 훈련을 충실히 하라.

단순히 문장의 길이가 늘어난 것 외에 글에서 주어진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글의 전반부나 후반부에 대부분 정답을 암시하는 문장이 있어, 한두 문장만 제대로 해석하면 정답을 찾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글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종합·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이다.

문장을 읽으면서 그 문장이 글 전체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글의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쓰기 문항(글의 순서 정하기,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 등)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지문을 이루고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답과 관련이 있다. 남은 기간 문제 풀이를 할 때 정보를 종합하는 훈련을 충실히 해야 한다. 중하위권은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전후 관계를 추론하고 유추하는 훈련을 곁들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점수대별 학습전략

1) 상위권(1~2등급)

- 듣기 영역에서의 감점이 없도록 규칙적으로 실전 듣기 훈련을 지속한다.
- 어법, 어휘 문항 대비를 위해 어법은 각 유형별로 10문항 이상씩 풀어보고, 어휘 복습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조금 더 어려운 어휘 도전에 해볼 만하다.
- 읽기의 경우 다양한 소재, 난이도의 문항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접한다.

2) 중위권(3~4등급)

- 듣기 고득점을 위해 규칙적인 실전 듣기 훈련 및 반복 듣기를 해준다.
- 취약한 어휘 보강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어휘를 암기하되 주로 독해 지문에서 만나는 어휘 위주로 암기한다.

- 어법 문제집을 통해 수능 출제 가능 유형을 숙지하고 되도록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철저히 학습한다.
- 읽기의 경우 실전 문제집들을 중심으로 풀어보되 EBS교재를 우선으로 풀어본다.

3) 하위권(5등급이하)

- 듣기 영역에서의 감점을 줄이기 위해 구어체 표현 및 어휘 암기에 치중하고, 실전 듣기에 익숙하도록 매일 청취력 훈련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취약한 어휘 보강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어휘를 암기하되 역시 독해 지문에서 만나는 어휘 위주로 암기한다.
- 어법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가장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묻는 어법 문제들을 골라 풀어 보되,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득점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암기해 둔다.
- 읽기의 경우 수준에 맞는 실전 문제집들을 중심으로 풀어보되 역시 EBS 교재를 우선해서 풀어본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영역	수량	교재명
외국어(영어) 영역	11권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FM 라디오> 고교영어듣기(1) <FM 라디오> 고교영어듣기(2) <인터넷수능> 영문법특강 <인터넷수능> 영어어휘특강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 I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 II <인터넷수능 고득점> 외국어영역 300제 <인터넷수능 고득점> 외국어영역 어법&어휘 150제 <10주완성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외국어영역

4. 사회탐구 영역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탐구 영역은 교과 내용의 지식과 이해를 묻는 문항뿐만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목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학습해야 한다. 또 교과서에 소개된 각종 지도·그래프·도표·그림·연표 등의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자료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해석하는 방법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이나 추론하는 문항의 경우, 경향성을 파악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탐구 영역은 시사성을 띠는 문항 출제에 대비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소재 등을 알고, 교과 학습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 교과의 기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숙지하자.

사회탐구 과목은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최근의 문항들은 여러 개념을 한꺼번에 묻거나 정확한 개념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항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정답을 고르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교과서와 노트 정리를 통해 확실한 개념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과 내용을 복습할 때 개념도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교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핵심 개념과 원리는 특정 단원에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전체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와 연계된 다른 개념과 용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

▶ 기출 문제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익혀두자.

9월 모의평가에서는 2010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기출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모의평가는 수능을 예측·대비하

고 현 시기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확인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출 문제의 답지나 자료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음 모의평가나 수능과 연결되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기출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 유사한 문항, 관련 있는 내용 등을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할 것이다.

▶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자.

사회탐구의 최신 유형은 복잡한 자료의 해석이다. 자료 분석 문제는 주어진 자료만 잘 해석하면 받은 힌트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득점이 쉬운 과목일 수도 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복잡성이 높은 자료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제 자료들의 기본은 교과서에 소개된 각종 지도·그래프·도표·그림·연표·글 등 모두가 익숙하게 접했던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를 다른 내용과 관련시키거나, 연관된 외부 자료를 인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해석하는 방법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문제를 푸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자.

사회탐구 영역은 과목의 특성상 시사적인 문제에 민감하다. 실제로 해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사적인 문항은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2010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사적인 문항이 출제되었고,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시사적인 내용과 실생활 관련한 문항이 일반사회 교과군에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는 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과에 나오는 개념과 원리를 시사 내용과 관련짓는 연습을 시험 직전까지 꾸준히 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연관 지어 파악하고 학습해 두어야 한다.

- ▶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취약 단원에 집중 투자하고, 실수를 줄이고자 주의를 기울인다.**

기본적인 사실을 묻는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는 수험생은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핵심 개념을 익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이다. 핵심 개념 학습 후에는 수능 결전의 그날까지 자신의 빈틈을 표적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학습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부족한 취약 단원은 집중 투자해야 하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실수는 최소화 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과목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며,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학습하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기본적인 개념도 익히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머릿속에서 교과 전체의 개념도가 그려질 정도로 자신만의 정리가 필요하며, 정리한 내용들이 목차에 맞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세부적인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 과목별 대비방법

▶ **역사 과목(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 시대의 흐름대로 연표를 활용하여 학습하되, 인물, 도표, 통일정책 등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당시 살포된 뼈라를 통해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문항 등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변별력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항 또한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건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 또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 **지리 과목(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 지리계열의 경우, 특히 EBS 교재의 자료 연계가 두드러졌다. 교재에 있는 표, 그림, 지도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학습한다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

을 묻는 문제 또한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나라별로 핵심이 되는 지명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BS 교재의 필수자료는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사적 소재를 활용한 문제로는 월드컵 경기가 개최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치를 소재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 열적도의 위치와 아프리카 기후 특성을 결합하여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문항 등이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일반사회 과목(윤리, 사회문화, 정치, 경제, 법과사회) : 대부분이 수능기출과 평가원 모의고사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되었고, 전반적인 난이도 또한 평이하였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EBS 교재의 자료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한 빈출되었던 주제나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남북한 산업구조 변화, 위안화 환율 변화 등의 시사적인 소재들로 출제된 문항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윤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자주 출제되는 형태, 즉 원전에 기반한 제시문을 통해 사상가를 알아내고, 그 사상의 특징이나 주장을 파악하는 형태의 문항에 대비하여 학습하여야한다.

역시 고득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와 EBS 교재에 수록된 관련 문제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다. 또한 수능 시험은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으로 기존의 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EBS 교재에 수록된 자료와 사례들을 눈여겨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영역	수량	교재명
사회탐구 영역	33권	선택과목별 3권 <수능특강> <10주완성 수능특강>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 11개 과목: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5. 과학탐구 영역

지금과 같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는 탐구영역에서 점수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과학탐구 영역은 해마다 출제되는 수능 문제가 이미 정형화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6월과 9월의 모의 평가는 수능의 예고편이므로 난이도, 신유형, 출제 경향 등을 스스로 예측하고, 자신이 틀렸거나 약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먼저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의 수능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특히, 올해는 연계율이 70%에 이르는 만큼 EBS 교재 중 어렵거나 소재가 참신하며, 변형해서 출제될만한 문제들은 다시 한 번 풀어보는 것이 좋다. 문제를 풀 때는 1문제당 1분 30초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시험처럼 푸는 연습을 한다. 수능에서는 교육 과정 중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재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져나가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좋다.

과학탐구 영역은 교과핵심개념과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자료를 정리하고 수능 유형을 파악, 실전에 대비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내 탐구과정과 실험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그래프, 도표 등을 꼼꼼히 정리하자.

▶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최근 수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확한 개념 이해를 요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개념이 없어도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항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한번 틀린 문항은 자주 틀리게 되는데 이는 한번 생긴 그릇된 개념을 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여 본인의 그릇된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 교과서나 기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정리한다.

수능이라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자료만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문항들이 기존에 많이 보아왔던 형태의 자료들이나 그 자료들을 응용하여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단순히 한 번 풀어보고 지나치지 말고 제시된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꼭 담아 두도록 하자.

▶ 도표, 그래프, 그림 자료들의 해석 능력을 완벽하게 한다.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들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기본 지식을 축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어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의 형식을 이용한 자료들이 학습 과정이나 문항 풀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관련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유형의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 실험 탐구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한다.

자료의 해석/분석 능력과 더불어 과학탐구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험, 탐구 활동의 설계 및 수행 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이다. 수능에서도 탐구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묻거나, 제시된 탐구 또는 실험 과정을 해석하여 어떤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알아내고, 확인한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직접 해 본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관련 개념과도 연관지어 이해해 두도록 하자.

▶ 개념 활용과 여러 개념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자.

지금은 문제 풀이를 위주로 수능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출제 경향들을 보면 단순히 하나의 개념을 묻기 보다는 여러 관련 개념들을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념들을 서로 연관 지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두도록 하자.

▶ 실전 감각을 익히자.

개념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평소에 웬만한 문항은 쉽게 풀 정도의 실력을 갖췄지만, 정작 시험 당일에 긴장하여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앞쪽의 문제에서 막히거나 시간을 많이 소비할 경우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소가 어디라도 상관없다. 수능 전까지 최소 5회 정도 실제 시험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모의시험을 쳐보도록 한다. 이 때 본인이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수준별 학습법

상위권(1~2등급) : 고난도 문항을 많이 풀어,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최근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수능을 30여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과목별 성적이 1~2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 수험생들은 교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내용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험생들은 남은 30여일 동안 현재의 학습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득점을 위한 새로운 고난도 문항의 풀이 학습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수능 문제는 다양한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관련 개념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으므로, 제시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요구된다.

또한 수능 D-30일은 수능을 한 달 남겨 놓은 시점이므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과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단계를 대비하여 그동안 정리해 둔 기출 문제나, 오답 노트를 보면서 관련 개념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학습을 병행하

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위권(3~4등급) :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계산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능 D-30일인 시점에서의 학습은 수능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지금부터 수능이 치러지는 날까지 집중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은 성적 향상의 폭이 클 수 있다.

3~4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은 남은 30일 동안 교과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념 학습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이미 갖추어진 개념의 틀을 견고하게 다듬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자주 들여다보는 방법을 활용하여 개념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 고난도 문항과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문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은 30일 동안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므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산 문항을 학습해 두기를 바란다. 과학에서의 계산 문항은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수식만 학습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과목별 학습법

▶ 물리 : 물리 I, II 모두 복잡한 계산보다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표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해석하여 계산을 통해 정답을 도출하는 문제와 여러 물체 사이의 상대적 운동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문제 등도 출제되었다.

이렇듯 자료변형 및 변별력을 갖는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단원에 고루 출제되는 그래프의 분석 방법, 힘의 분해, 합성,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기 보다는 공식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상황에서 물리 개념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

▶ 화학 :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문항들이 많았으며, 자료 및 문제 유형이 익숙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깊이 있는 사고력,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 문항도 출제되어 변별력을 높였다. 앞부분에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하였으나, 어려운 문제들이 뒷부분에 다수 배치되어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화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탄소 화합물의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야한다.

물의 특성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소 결합의 기출 문항을 많이 풀어보고, 수용액에서의 반응은 출제 비중이 높고 다양하게 변형 문항이 다수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여러 유형의 문항을 접해 보아야 한다. 또한, EBS 연계 교재의 자료를 변형하여 풀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 생물 : 전반적으로 생물I의 경우,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배경 지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통합적 사고나 계산을 통해 정답을 도출하는 문제가 많아 난이도가 다소 높게 느껴졌다. EBS 연계의 경우, 기존의 개념 연계 보다는 문항의 자료 연계가 매우 높아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 단, 6월 모의평가와 달리 각각 다른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두 자료를 함께 연관지어 출제하는 등 자료를 변형하거나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물 고득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는 꼭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주 출제되는 모의고사 유형을 숙지하

고, EBS 연계 교재의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변형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높이는 것이다. 기출 문항 중 순환 및 유전, 배설 및 자극과 반응 단원을 아우르는 고난도 통합형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관련 문항도 많이 풀어두어야 한다.

▶ 지구과학 : 대부분 과거의 출제 경향과 비슷하게 출제되었고, 새로운 소재나 변형된 자료를 사용한 문제의 비중이 감소하여 평이한 시험이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EBS 연계 교재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료나 선택지를 약간 변형하거나 거의 그대로 출제된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 지구과학I의 경우, 시사성 있는 아이슬란드와 화산 활동을 다룬 12번 문제가 눈에 띄며, 7번 문제는 수능특강 102쪽 4번 문제와 거의 똑같이 출제되었다.

또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천체 단원에서 시운동과 위상변화를 해석하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변별력을 높이는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과학탐구영역 고득점을 위해서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되, 6,9월 모의평가 기출유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EBS 연계 교재의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영역	수량	교재명
과학탐구영역	24권	선택과목별 3권 <수능특강> <10주완성 수능특강> <수능특강 Final 실전모의고사> ※ 8개 선택과목: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Ⅲ. D-30 마무리 전략

1. 그동안 쌓아 온 감각 유지와 컨디션 조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능을 한 달 남짓 남겨 둔 지금 수험생들의 마음은 쉬어도 마음 편히 쉬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것저것 공부를 해도 마음만 급할 뿐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은 급해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배워 왔던 내용에 대한 정리와 컨디션 조절이다. 수능 시험 D-day의 중압감에 눌려 그동안 유지해 온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면, 정작 수능 당일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수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30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능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부한 내용이 충분한 것 같지 않고,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도 실수를 범하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 등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해 왔던 페이스가 흔들려 컨디션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수능 당일까지의 컨디션 조절과 건강 유지라고 할 수 있다.

3. EBS 수능 교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에서 발표한대로 6월 보다 EBS 연계율이 약 60% 정도로 확대되었다. 특히, 언어와 외국어에 있어서는 제시문이 EBS 교재에서 직접 인용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설의 경우에서 나타났듯 동일 작품의 전후 부분에서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한 작품의 전체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 영역에서는 같은 제시문에 문제를 다른 형태로 출제하여 한 제시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때 다

양한 유형의 문제를 적용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수리영역은 언어와 외국어 영역과는 달리 간접연계 경향이 많았는데 문제를 변형하거나 여러 문제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든 경우도 있어 EBS를 활용하되 기본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모의수능에서 출제된 신유형의 문제에 대한 개념정리와 이해도 필요하다.

영역별 고득점을 위해 EBS 교재의 지문과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어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 9월 모의수능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문 및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도 중요하다.

4.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수시 모집 1차 합격자가 발표되어 이미 당락이 결정된 수험생들로 인해 교실 분위기가 이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 수험생들 각자 중심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합격한 사람들은 나머지 대다수의 친구들을 위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신속히 앞으로의 일정에 맞춰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전 훈련을 통해 시간에 대한 안배 및 영역별 문제 유형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와 기출 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로 중요한 기본 개념을 재확인하고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풀어보며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한다. 수능 당일까지 3~4번 정도의 실전 훈련을 거치는 것은 자신감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습해 온 내용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6. 자신이 선택한 영역은 한 영역이라도 포기하는 영역이 없어야 한다.

공부해야 할 것은 많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특히 수리영역의 경우 어차피 공부해도 모르는데 포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암기과목을 더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수능에서는 기본개념만 익히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이므로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본개념을 익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반영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의 합격·불합격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목표대학을 정하고 해당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위권 주요 대학 등 대부분의 대학이 3+1(언수외+탐) 체제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인문계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에 사회탐구, 자연계는 과학탐구를 포함해 공부하되, 인문계는 비중이 큰 언어와 외국어 위주로, 자연계는 수리와 과학탐구 중심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인문사회는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고, 명지대 인문사회와 같이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모든 과목에 힘을 쏟기보다는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특히 탐구영역은 서울대를 제외한 수도권 주요대학들이 대부분 2과목을 반영하므로 4과목을 공부하고 있지만 4과목 전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을 고려한 후 9월 모의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3개 과목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1학년도 정시모집 수능 반영영역〉

[인문사회계열]

계열	반영 영역수	대학명
인문 사회	5개영역	서울대학교
인문 사회	4개영역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원대(춘천), 건국대(서울), 건동대, 경북대(대구), 경북대(상주),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희대(서울), 경희대(수원), 계명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조치원), 고신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서울),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서울),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밀양), 부산대(부산),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경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숙명여대, 송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부산), 영산대(양산), 울산과학기술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창원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탐라대, 한경대, 한국외국어대(서울), 한국외국어대(용인),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한중대, 홍익대(서울)
인문 사회	3개영역	가야대(고령), 가야대(김해), 가천의과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삼척), 강원대(춘천),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동대, 경북외국어대, 경원대, 경일대, 경주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관동대, 광주대, 광주여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신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남대(남원), 서남대(아산), 서울기독교대, 서울산업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성민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경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원주), 영남신학대, 예수대, 용인대, 우송대, 원광대, 을지대(대전), 을지대(성남),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진주산업대, 차의과학대, 청운대, 청주대, 총신대, 충주대, 침례신학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복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홍익대(조치원)
인문 사회	2개영역	광신대, 그리스도대, 루터대, 명지대(서울), 부산장신대, 삼육대, 성결대, 송실대, 영동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성남), 차의과학대, 추계예술대, 한국국제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인문 사회	1개영역	영산신학대, 예원예술대, 칼빈대
인문 사회	미반영	경남대

[자연이공계열]

계열	반영 영역수	대학명
자연 과학	4개 영역	가톨릭대, 강원대(춘천), 건국대(서울), 건동대, 경북대(대구), 경북대(상주),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강원대, 경희대(서울), 경희대(수원), 계명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남부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국대(서울),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밀양), 부산대(부산),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부산), 영산대(양산), 예수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창원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성서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한중대
자연 과학	37개 영역	가야대(김해), 가천의과대학, 강릉원주대, 강원대(삼척), 강원대(춘천),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동대, 강원대, 경주대, 공주대, 광주대, 광주여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나사렛대, 남부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용인),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배재대, 삼육대,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남대(남원), 서남대(아산),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경대, 안동대, 안양대, 용인대, 우송대, 원광대, 을지대(대전), 을지대(성남), 이화여대, 인제대, 중부대, 중원대, 진주산업대, 차의과학대, 청운대, 청주대, 충주대, 한국외국어대(용인),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복대, 한서대, 한신대, 호남대, 호서대
자연 과학	2개 영역	안동대, 영동대, 우석대, 위덕대, 한국국제대, 호원대
공학	4개 영역	가톨릭대, 강원대(춘천), 건국대(서울), 건동대, 경북대(대구), 경북대(상주),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계명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국대(서울),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밀양), 부산대(부산),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송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부산), 영산대(양산), 울산과학기술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창원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탐라대, 한경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한중대

계열	반영 영역수	대학명
공학	3개 영역	가야대(김해),가천의과학대,강남대,강릉원주대,강원대(삼척),강원대(춘천),건국대(충주),건양대,경기대(수원),경남대,경동대,경성대,경일대,경주대,공주대,관동대,광주대,광주여대,군산대,극동대,금오공과대,김천대,남부대,남서울대,대구한의대,대불대,대전대,대진대,덕성여대,동국대(경주),동덕여대,동신대,동양대,명지대(용인),목원대,목포대,배재대,백석대,삼육대,상명대(천안),상지대,서남대(남원),서남대(아산),서원대,선문대,성공회대,세명대,수원대,순천대,순천향대,송실대,신경대,안동대,안양대,우송대,원광대,인제대,전주대,중부대,중원대,진주산업대,청운대,청주대,충주대,평택대,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기술대,한국성서대,한국외국어대(용인),한국항공대,한국해양대,한남대,한라대,한림대,한밭대,한복대,한서대,한성대,한세대,한신대,협성대,호남대,호서대,홍익대(서울),홍익대(조치원)
공학	2개 영역	목포해양대,성결대,영동대,우석대,울산대,위덕대,한국국제대,호원대,홍익대(서울),홍익대(조치원)
의학	4개 영역	가천의과학대,가톨릭대,강릉원주대,강원대(춘천),경상대,경운대,경원대,경일대,경희대(서울),계명대,고려대(서울),고신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대전대,동국대(경주),동신대,동아대,동의대,부산대(부산),상지대,서남대(남원),서울대,세명대,순천향대,신라대,아주대,연세대(서울),연세대(원주),영남대,우석대,우송대,울산대,원광대,울지대(대전),인하대,전남대(광주),전북대,제주대,조선대,중앙대(서울),창원대,초당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서울),한중대,호원대
의학	3개 영역	가야대(김해),가천의과학대,강릉원주대,강원대(춘천),건국대(충주),건양대,경동대,경주대,관동대,광주대,광주여대,극동대,남부대,남서울대,대구한의대,대전대,동덕여대,동신대,명신대,목포대,백석대,삼육대,상지대,서남대(남원),서남대(아산),세명대,순천향대,영동대,울지대(성남),이화여대,인제대,전주대,중부대,청운대,청주대,충주대,한림대,한서대,호남대,호서대
의학	2개 영역	우석대,한국국제대,호원대

[예체능계열]

계열	반영 영역수	대학명
예체능	4개 영역	강원대(춘천),경상대,경운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서울),동명대,동서대,동아대,동의대,부산대(부산),부산외국어대,상명대(서울),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신라대,연세대(서울),연세대(원주),영산대(부산),영산대(양산),이화여대,전북대,중앙대(서울),초당대,탐라대,한경대,한중대
예체능	3개 영역	가천의과대학,강남대,강릉원주대,강원대(삼척),강원대(춘천),건국대(서울),건국대(충주),건동대,건양대,경기대(서울),경기대(수원),경남대,경동대,경북대(대구),경북대(상주),경상대,경성대,경일대,경주대,계명대,고려대(세종),고신대,공주대,관동대,광운대,광주대,광주여대,국민대,군산대,극동대,남부대,남서울대,단국대(죽전),단국대(천안),대구대,대구예술대,대전대,대진대,덕성여대,동국대(서울),동덕여대,동서대,동신대,동아대,동양대,동의대,명신대,명지대(용인),목원대,목포대,배재대,백석대,부경대,상명대(서울),상명대(천안),상지대,서경대,서남대(남원),서남대(아산),서울기독대,서울대,서울산업대,서울시립대,서울신학대,서울장신대,서원대,선문대,성균관대,성민대,성신여대,세명대,수원대,순천대,순천향대,신경대,신라대,안동대,안양대,연세대(원주),영남대,우송대,울산대,이화여대,인제대,인천가톨릭대,인하대,전남대(광주),전남대(여수),전북대,제주대,조선대,중부대,중앙대(서울),진주산업대,창원대,청운대,청주대,충신대,충남대,충북대,충주대,평택대,한국체육대,한국해양대,한남대,한라대,한림대,한밭대,한북대,한서대,한성대,한세대,한신대,한양대(서울),한양대(안산),한영신학대,협성대,호남대,호남신학대,호서대,홍익대(서울),홍익대(조치원)
예체능	2개 영역	가톨릭대,경원대,경일대,경희대(서울),경희대(수원),고려대(서울),광신대,그리스도대,단국대(죽전),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대전대,대진대,동국대(경주),명지대(용인),삼육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결대,성균관대,세종대,숙명여대,송실대,연세대(서울),연세대(원주),영동대,용인대,우석대,원광대,위덕대,을지대(성남),장로회신학대,제주대,중앙대(서울),중앙대(안성),청주대,추계예술대,한국국제대,한일장신대,호원대
예체능	1개 영역	동명대,예원예술대,칼빈대
예체능	미반영	조선대

[사범계열]

계열	반영 영역수	대학명
사범	4개 영역	가톨릭대, 강원대(춘천), 건국대(서울), 경북대(대구), 경상대, 경성대, 경인교육대(인천), 계명대, 고려대(서울), 고신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광주교육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동국대(서울),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부산대(부산), 상명대(서울),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신라대, 연세대(서울),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전주교육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진주교육대, 창원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외국어대(서울), 한양대(서울), 한중대, 홍익대(서울)
사범	3개 영역	가야대(김해),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춘천), 건국대(서울),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동대, 경상대, 공주대, 관동대, 광주대, 광주여대, 극동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죽전),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국대(서울), 동신대, 동양대, 명신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서원대, 성신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 안양대, 영남대, 영동대, 용인대, 원광대, 을지대(성남), 인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광주),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청주대, 충신대, 충주대, 침례신학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남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사범	2개 영역	광신대, 부산장신대, 숙명여대, 우석대, 원광대, 위덕대, 중앙대(서울), 청주대, 한국국제대, 호원대, 홍익대(서울)
기타	4개 영역	건국대(서울),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명대, 동아대, 부산외국어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광주), 전북대, 조선대, 한동대, 한중대
기타	3개 영역	가천의과학대, 건국대(충주), 동국대(경주), 상명대(천안), 한국항공대, 호남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8. 가중치·가산점, 교차지원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도 역시 많은 대학이 반영 비율 및 가산점 부여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므로 수험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역별 등급 점수를 부여한 뒤 계열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영역별 가중치와 가산점 등의 활

용방법을 면밀히 살펴 자신의 응시영역과 해당 등급에서 점수가 불리하게 산출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교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망대학에서 수리 "가", "나"형을 모두 반영하는지를 살핀 뒤 지원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교차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 및 과학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시모집 수리“가” 영역 가산점 부여 대학〉

수리	지역	대학
'가' 형	서울	서울산업대(35%), 가톨릭대(5%), 국민대(10%), 덕성여대, 동국대(서울-5%/10%), 삼육대, 상명대(서울), 서경대, 성공회대(10%), 성신여대(5%), 세종대(10%), 숭실대(8%), 한성대
	인천경기	한경대(10%/일부:20%), 가천의과학대(10%), 강남대(3%), 경기대(수원), 경원대, 단국대(죽전-10%), 대진대(3%), 명지대(용인-15%), 상명대(천안-5%), 수원대(3%), 인하대(10%), 아주대(7%), 안양대(10%), 평택대(10점), CHA의과학대(5점), 한국산업기술대(2%), 한국외대(용인-10%), 한국항공대(10%), 한북대(5%), 한신대(4%)
	강원제주	강릉원주대(3%), 강원대(15%), 상지대(3점,5점), 제주대, 관동대(5%), 춘천교대(5%), 한림대(7%)
	대전충남	공주대(5%), 한밭대(10%), 건양대(3점), 공주교대(5%), 남서울대(5%), 대전대, 선문대(10%), 순천향대(2%), 을지대(5%), 중부대(10/15점), 한국기술교대(15점), 한서대(3%)
	충북	충북대(20점), 충주대, 한국교원대(10%), 건국대(충주-10%), 극동대(5%),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4%), 서원대(3%/수교-20%), 세명대(10%), 영동대(10점), 중원대(2%), 청주대(30점), 청주교대(5%)
	광주전남	목포대(10%), 목포해양대(5%), 전남대(20%), 순천대, 대불대(수교-10%), 동신대(5%), 조선대(15%), 한려대(10%)
	전북	군산대(10%), 전북대(10%), 건동대(3점), 예수대(10%), 우석대(수교), 전주대(10%)
	부산울산경남	경상대(15%), 부경대(15%), 부산대(10%), 창원대(10%/20%), 한국해양대(10%), 경성대(2.6배), 경남대(10%), 고신대(15%), 동명대(10점), 동서대(10%), 동의대(5%), 동아대(10점), 부산가톨릭대(2%), 부산외대(2%), 신라대(5%), 울산대(10%), 한국국제대
	대구경북	금오공대(10%), 안동대(15%/일부:25%), 경일대(10%), 계명대(10%), 대구가톨릭대(10%), 대구대(5%), 대구한의대(10%), 동국대(경주-수교5%), 동양대(10점), 영남대(10%)

9. 오답노트 정리 또는 요약노트를 준비하자.

오답노트 정리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약점을 보완해준다. 일일이 오답 풀이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깝다면 문제집의 정답 풀이를 십분 활용해도 된다. 최근 문제집의 정답지는 정답 설명뿐 아니라 오답의 이유도 알려주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자습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역별로 문제집을 하나 골라 틀린 문제의 정답 해설을 반복해 읽어보는 것도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법이다. 특히 암기가 중요한 탐구영역에서 오답노트, 정답지 활용은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과 더불어 너무 많은 양의 오답이 노트에 정리되어 학습량에 부담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나 문제를 정리한 요약노트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 요약노트로 자신에게 취약한 개념 등을 정리해 둔다면, 수능 시험 당일 소지하여 쉬는 시간에 한번 더 보기도 편리할 것이다.

10.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관리와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만큼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식사량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심야시간대에 주로 공부하고 낮에 낮잠을 잤던 생활 패턴을 가졌던 학생은 서서히 낮 중심의 공부 패턴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는 시간대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1.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공부할 시간은 남지 않았는데 해야 할 공부는 산적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원래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해야 할 것이 더 많은 법이다. 또 아무리 성적이 좋은 상위권이라도 한 번 보는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평상심을 지키고 여러 과목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불안 심리를 다스려야 한다. 수능 시험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몇 번씩 맞아서 전국 수석을 수차례 한 학생도 떨어진다. 남들도 모두 그렇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해가는 불안감은 가장 중요한 정리시기를 놓치게 한다.

12.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시기는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영역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과 수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야 한다. 또 수능 시험장에서 볼 최후의 요점정리 노트도 마련한다. 언어와 외국어는 최소한 2~3일에 한 번씩 수능 형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아야 하고, 수리와 과탐에 대한 정리용 노트도 필요하다.

13. 수능시험 시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시험시간이 심지어 126분에 걸쳐 진행되는 탐구영역도 있고, 언어 80분, 수리 100분, 외국어 70분 등 모두 한 시간을 넘는다. 50분 수업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학능력시험은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하고 집중력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공부시간을 수능 시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쉬는 시간을 20분씩 하는 것도 실제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 50분 단위로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두 시간을 한꺼번에 이용하여 수능 시험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율학습 시간을 혹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수능 시험시간만큼 조절하여 미리 수능시험시간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14. 자신이 직접 요약하고 정리하자.

얼마나 새로운 것을 더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는 것을 잘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은 요약 정리된 책을 선택하는데, 요약 정리는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해야 효과가 크다. 즉 수학기공식을 정리한 요약집보다는 자기가 직접 수학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기공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정리하지 않고 요약집을 보는 것은 여행에서 여행 가방을 남이 싸준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할 때 어디에 있는지 잘 찾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스스로 요약하면서 모르는 것은 다시 읽고 어떻게 공식이 유도되는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지난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미 수험생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치러본 경험이 있으며 그 성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과 이번 9월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포함하여 3월부터 응시했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초로 월별, 영역별 백분위 성적 비교표를 작성하여 백분위 성적이 크게 변하는 영역은 그만큼 자신의 실력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보강해야 한다.

16. 수능 응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리리를 잊어야 한다.

수리 "가", "나"형의 경우 표준점수로 따질 때 "나"형이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나"형으로 바꾼 경우나 그대로 "가"형으로 응시하는 경우 이미 수능 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응시 과목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마음 편하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형은 표준점수로 따질 때 좋은 점수로 나오게 하려면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탐구 과목도 마

찬가지이다.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하냐의 문제에 남은 30일 동안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수능 마무리 전략

- ❖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70%로 예고된 만큼 EBS 학습을 기본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라.
- ❖ 새로운 변화보다는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
- ❖ 단원별로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핵심 요점을 고르게 정리하라.
- ❖ 기존에 치렀던 모의고사를 통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나 강·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책을 수립하라.
- ❖ 교과서 정독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라.
- ❖ 어렵거나 새로운 문제집보다 쉽고 손에 익은 문제집을 선택하여 학습해라.
- ❖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지를 통해서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감을 길러라.
- ❖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표시를 해두고 반드시 2~3번 반복 확인하는 학습을 해라.
- ❖ 시험 중 긴 지문을 반복해서 읽지 않도록 연습하고, 주어진 시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라.
- ❖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라.
- ❖ 건강에 유의하라.

IV. 수능 D-day 시기별 전략

1. 제1기(10월 19일~11월 4일) 취약 부분에 집중하는 마지막 시기

수능시험 30일, 비록 짧은 기간일 수 있으나 영역별 학습 진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되돌아본다면 어느 정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는 있다. 또 실전 대비 문제풀이 등을 병행하여 자신의 약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면 적어도 1등급 정도는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기 쉽다. 지금까지의 수능 모의평가나 학력평가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틀렸던 부분이나 취약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그 동안 작성해온 오답 노트를 이용하여 오답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실제 수능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알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자기의 지식으로 굳히는 학습도 필요하다. 문제를 풀면서 어렵듯이 기억은 나는데 공식이 떠오르지 않거나, 정확한 개념 정의가 생각나지 않거나, 스스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간 부분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좋다.

▶ 상위권 - 감을 유지하며 실수를 줄여라

상위권 수험생들은 이미 개념 정리나 유형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더 보충해야 하기보다, 실수를 줄여 사소한 것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실력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고 검토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또한 문제를 풀면서 너무 쉬웠던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확실히 기호로 체크해 놓고 검토할 때에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금의 감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의 실력을 믿고 학습 패턴을 느슨하게 하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어느 한 과목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과목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시간을 잘 분배하여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과목을 공부할 때도 여러 유형의 문제를 골고루 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수능 모의평가나 학력평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들 문제를 여러 번 두루두루 풀면서 오답은 확실히 체크해 놓으면 감을 잃지 않으면서 부족한 것들을 확실히 보충해 나갈 수 있다.

▶ **중위권 - 어설픈 개념을 확실히 하라**

중위권은 어설픈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대충 감으로 또는 자료를 어설픈 분석해서 그럴듯한 답을 찍어내는 경우가 많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그 동안 감으로 해결하였던 문제들이 있으면, 이것은 왜 답이고 이것은 왜 답이 안 될까 분석하며 푸는 연습을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문제집의 개념 정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훑어보면서 자신이 어렵듯이 알고 있던 것들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오답 정리해 놓은 것을 한 번 더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개념 정리나 공식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 더 많은 문제풀이 경험을 쌓아야 한다.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참신한 유형이나 어려웠던 문제들은 확실히 체크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풀어야 한다.

▶ **하위권 - 과목 전체 흐름을 파악하라**

하위권은 일반적으로 개념 정리가 확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과목 및 단원 간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교과서 목차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교과서를 정독하며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한다. 앞부분에는 어떤 것을 배우고 뒤에는 어떤 것을 배우는 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등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여야만 세세한 단원을 학습하려는 의지와 흥미가 생기게 된다. 또 문제집의 내용 정리를 어설픈 암기하기보다는 교과서를 정독하고 필기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2기(11월 5일~11월 14)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시기

수능시험을 위해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할 시기이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주기를 수능시험 당일에 맞게끔 조정하는 작업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실력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수능시험 약 2주 전부터는 실제 시험 시간에 따라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침부터 수능시험에 따라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고, 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업 이후 공부하는 순서를 언어 - 수리 - 외국어 - 탐구 영역 순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문제풀이보다는 되도록 전 영역의 최종 정리에 집중해야 한다. 또 이 시기에는 1교시 과목인 언어영역 성적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교시가 전체 시험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므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은 평상시보다 언어영역 공부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제3기(11월 15일~11월 17일) 실제 수능을 치르는 기분으로 대비하는 시기

그 동안은 공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느라 시간 관리에는 조금 소홀했을지 몰라도 이 시기만큼은 실제 수능시험 시간과 일치된 학습 패턴으로 보내야 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열심히 문제만 풀면서 ‘수능시험 당일에 어떻게 잘 풀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간 부족과 마음의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당일 컨디션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제 수능시험 당일 시간표와 동일하게 공부하는 패턴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르는 것은 미련을 버리고 아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자세로 공부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수능시험 당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무의식을 수능시험에 적응시켜야 시험장에서 긴장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시험 시간 패턴별 공부 계획

【AM 6:00 - 8:00】 수험생마다 고사장의 위치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미리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보고 기상하는 시간을 정해서 몸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수능시험 당일의 생활 패턴을 예상하며 밥 먹는 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시험 당일과 동일하게 행동하면 더욱 좋다.

【AM 8:00 - 8:30】 수능시험장에 도착하여 국어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다시 한 번 목차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수능시험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모르는 작품을 공부하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작품들을 다시 훑어보는 기분으로 정리해야 한다.

【AM 8:40 - 10:00】 1교시 언어 영역 지금까지 공부해 온 언어 영역의 종합 정리로 시작하자. 쓰기·운문·산문·비문학 등등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특히 문학 부분의 단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문학은 꼭 한번 다시 정리하여 그 작품 내용의 유기적인 관계가 파악해야 하고, 각 지문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며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해 보자. 모의고사 문제집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AM 10:30 - 12:10】 2교시 수리 영역 지금까지 공부한 수리 영역 파이널 문제집 중 구성이 가장 맘에 드는 문제집 한 권을 골라서 정리한다. 수리 영역 파이널 문제집들은 수학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만 담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수능형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실전 감각도 기를 수 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고 그 문제의 전체 단원의 모든 공식들을 떠올리는 것이 좋다.

【PM 1:10 - 2:20】 3교시 외국어 영역 외국어 영역은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 시험지와 파이널 문제집으로 정리하는데 특히 틀렸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지문 하나하나를 빠르게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틀렸던 문제는 왜 틀렸었는지 회상해야 한다. 이 시간에는 듣기를 제외한 문제에 투자를 하고 듣기 영역은 5교

시까지 모두 끝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PM 2:50 - 4:56】 **4교시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은 자신만의 텍스트인 개념 정리서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각 교과목의 목차가 모두 생각나는지 다시 한 번 암기해 보고 각 단원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된다. 이런 자신만의 텍스트를 통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리한 내용을 목차에 맞춰 떠올릴 수 있는 회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PM 5:25 - 6:05】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5교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라면 대부분 정리된 노트나 문제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PM 7:00 - 11:00】 **마무리 정리** 저녁을 먹고 난 후부터는 오늘 본 내용에 대한 보충 공부를 하되 순서는 언어 - 수리 - 외국어 - 탐구 영역 순으로 하되, 가지고 간 참고서나 문제집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PM 11:00 - 12:00】 자기 전에는 반드시 수능시험 당일의 행동 패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정신을 바로잡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한다. 마인드 컨트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험장에 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실제 시험장에 있는 모습을 반복적 그려보는 마인드 컨트롤은 자신의 신체가 시험 당일의 과도한 긴장으로 실력 발휘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AM 12:00】 취침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6시 기상 기준으로는 12시에는 반드시 수면에 들어 최소한 6시간은 자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만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수능 남은 기간별 유의사항

❖ D-30

- 현재의 성적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 새로운 영역, 어려운 영역 등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 서서히 수능 당일 생활 리듬으로 몸을 맞춰라

❖ D-10

- 마지막이다. 더 이상 모르는 내용에 집착하면 안 된다.
-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 갑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지 마라.

❖ D-1

- 모의 수능 문제를 보면서 난이도에 따른 시간 안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 잠들기 전에 기상시간, 문제 풀이, 쉬는 시간 등 수능 당일을 상상하라.
- 핵심 노트, 오답 노트 내용을 반복 학습하라.
-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시험실,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라.
- 잠들기 전에 준비물, 기상시간 등 수능 당일 계획을 점검하라.
- 긴장 등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누워서 암기과목 등의 책을 보면서 잠을 유도하라.

❖ 수능 당일

- 어려운 문제는 남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내가 아는 문제는 나에게만 행운이라 생각하라.
-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어라.
- 문제를 푸는 동안 남은 문제와 남은 시간을 염두에 두라.
- 매교시 시험을 마친 후 절대 정답을 확인하지 마라.
- 이미 치른 영역의 시험은 잊고 매 교시 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V. 수능 시험일과 그 전후의 유의사항

1. 수능 전날 / 예비소집일 (11월 17일, 수요일)

- (1) 예비소집에 가서 고사장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편이나 아침에 교통 체증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시험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고사장(교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수험번호에 따라 자신이 앉게 될 위치와 듣기평가에 중요한 스피커와의 거리 등을 살핀다. 난로 쪽인지, 창가 쪽인지에 따라서 다음 날 챙겨야 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핸드폰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사장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좋다. 사진을 반복해서 봄으로써 고사장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과 함께 수능 시험 1교시 시작 전에 나오는 듣기평가 방송파일(EBS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등을 들으면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면 마인드 컨트롤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 시험장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자. 다음 날 실제 안내방송이 나올 때는 듣기평가 답지를 먼저 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자.

- (2) 저녁 식사 후 곧바로 ① 수험표 ② 학생증(또는 주민등록증), ③ 필기구(연필(흑색),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mm)), 시험장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④ 요약노트 ⑤ 단어장(혹은 손때가 묻은 문제집), ⑥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⑦ 티슈 ⑧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등을 가방에 넣고 확인한다. 옷은 평상시 입던 것 가운데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색깔의 것으로 골라 춥지 않을 정도로 준비한다. 단, 움직임이 둔하지 않도록 하고,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겹쳐 입어(여러 벌을 겹쳐

입으면 온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 더울 때 벗어 놓을 수 있도록 한다. 물을 적실 수 있는 수건과 마른 수건 두 장을 준비하고 보온병도 2개(찬 보리차, 따뜻한 보리차, 혹은 꿀물)준비한다.

(3) 저녁 식사 후 지금까지 공부한 책의 핵심들(교과서 중심)을 그림, 사진, 도표, 지도 등에 주의하여 책의 제목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상상하면서 2~3 시간 정도 넘겨본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야 하며 암기하거나 꼼꼼히 다시 보지 말고 그 책들의 내용을 회상시켜 보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 가벼운 온수욕(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을 하고 10시 이전(12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에 잠자리에 든다. 그냥 평소 처럼 공부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도 무방하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에는 눈을 감고 잠이 올 때까지 아라비아 숫자(1, 2, 3, 4, 5……)를 세어보거나 영어 듣기 테이프를 듣는다.

물론 수능 전날 오후부터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절대로 금물이다. 노래도 듣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 날 머릿속에서 계속 윙윙거릴 위험이 있다(수능 시험일에도 마찬가지)

(5) 받아온 수험표 뒷면에 각 영역별로 답을 적을 칸을 만든다. 실제로 수능을 치르면서 수험표 뒤에 자신이 풀었던 문제의 답을 적어놔야만 정답을 맞춰보고 점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점수를 모르면 수능시험일로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점수를 몰라 입시전략을 세우지 못할 위험이 있다.

(6) 가족이나 친지가 시험을 잘 보라고 격려할 것이다. 격려를 부담스럽게 받아드릴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친지와 의 만남을 피하고, 조용히 12년간의 수험생활을 정리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예민한 성격이라면 부모님께 다른 친척들의 전화를 바꾸어주지 않도록 부탁해 놓거나 각종 선물들을 시험 후에 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는다. 또 초콜릿, 찹쌀떡, 엿 등은 소화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이 먹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2. 수능 시험일(11월 18일, 목요일)

◆ 시험장 도착 전

- (1) 일어나기 전에 우선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 일어난 후 명상을 하여(할 수 있다는 믿음) 머리를 맑게 하고 맨손 체조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 (2) 아침은 평소 즐기던 음식중 위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소의 2/3 정도만 따끈하게 챙겨 먹는다. 밥맛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먹자. 아침을 먹어야 시험성적이 좋다는 연구사례도 있다. 전혀 먹지 않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부모님의 걱정이 나에게도 텔레파시로 전달될 수 있다.
- (3) 아침에 어떤 약이건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은 시험 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미리 병원을 찾아 수험생임을 밝히고 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청심환, 콧물감기약, 진통제 등 모든 약은 절대 금물!) 일어나는 대로 잠시 온수욕을 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좋다.
- (4) 전날 밤 챙겨놓은 가방을 가지고 출발한다. 번호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자.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다. 과도한 긴장감은 금물이지만, 비장한 각오 역시 필요하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덜한 법이다. 시험장으로 이동 시에는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조금 일찍 (3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를 한다.
- (5) 당일 편한 교통편을 이용하되 만약 시험장 도착 시간이 늦어질 만한 급한 사정이 생기면, 경찰관이나 택시기사 아저씨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한다. 오늘만큼은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다.
- (6) 차안에서는 아침의 명상(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이어서 '나는 오늘 시험을 잘 치른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차례 반복하고 고득점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 (7) 미처 수험표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당황하지 말고 시험 본부로 가서 도움을 청한다.
(규정 :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에게는 시험장 책임자가 응시원서와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가수험표" 교부("가수험표" 양식은 미리 준비)하고, 해당 감독관에게 통지).
- (8) 시간이 늦어 시험장에 갈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시험장으로 가서 도움을 청한다.
- (9) 가는 도중에 1교시 시작 전에 나오는 듣기평가 방송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mp3 등으로 다운받아서 들으면 됨)
- (10) 점심은 도시락(보온도시락이면 더욱 좋음)을 준비해 간다.

◆ 시험장 도착 후

- (1) 도착 즉시 수험장을 확인하고, 입실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본다. 그리고 입실하여 자신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적 환경을 만든다. 의자나 책상의 볼트, 너트를 조이고, 덜컹거릴 경우 티슈로 고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만 있는 것이 좋다. 무엇이든 거치적거리는 것은 의자 밑에 두도록 한다. 가방 겹이에 가방을 걸고, 반대편 가방 겹이에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걸어 놓는다. 물수건은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과도하게 긴장되는 경우, 혹은 졸릴 경우에 얼굴이나 목 주변을 닦는데 쓴다.
- (2) 혹시 긴장이 되면 가지고 간 뜨거운 보리차를 ‘후후’ 하고 소리 내어 불며 마시는 것이 좋다. 친구들과의 수다는 금한다. 옛날 장수들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말을 아꼈다. 기(氣)가 새어나간다는 것이다.
- (3) 혹시 수험표나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사 본부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 (4) 시험 직전,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서너 차례 한 뒤 예상문제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안정을 위해 부모님이나(특히 어머니) 존경

하는 사람의 인자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자만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절대 움츠러들지도 않도록 한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 (5) 아는 문제가 나오면 풀고, 정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남겨 두고 과감하게 다음 문제를 푼다. 모르는 한 문제를 풀기위해 고민할 시간에 독해 문제를 몇 문제 더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시간 부족을 느낀다면 더욱 그렇다. 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오전 시험**

- (1)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어려우면 남에게도 어려울 것이다. 자신감을 갖자. 수능 성적의 30%는 답력이 좌우한다. 내가 망했다면 다른 사람도 망했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라. 난이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만약 언어가 망했다면 언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고 생각하자.
- (2) 문제는 반드시. 아는 것, 쉬운 것, 잘 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해결한다. 예를 들면 문학이 강한 학생은 문학부터, 비문학이 강한 학생은 비문학부터 푸는 것이다. 신중하고 차분하며 신속하게 유추, 직감, 잠재의식까지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풀고,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검토, 검산한다. 혼동되고 어려운 문제는 그럴 듯한 답 2개를 시험지에 표시하고, 검토를 하게 될 나중으로 미룬다.
- (3) 각 교시별 종료 10분 전에는 문제를 못다 풀었더라도 답안을 작성한 후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답안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한다. 원터치 펜(한 번에 찍는 뭉뚱한 펜)도 무방하다. 과학적으로 답안의 원을 모두 메우지 않아도 채점은 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빈곳이 없도록 채우고 문제를 다시 살피면서 답을 확인한다.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수험번호', '이름', '계열 표기'가 맞게 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규정 : 시험 종료가 되면 정감독관은 수험생에게 일제히 필기 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눈을 감도록 한 다음 답안지와 문제지를 완전히 회수하여 시험용품과 함께 시험관리본부에 인계)

- (4)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험관에게 요청한다.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밀려 쓰지 않은 이상) 수정용 테이프를 달라고 요구해서 답안지를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답안지 교체도 당당하게 요구한다. (OMR용 답안지의 교체요구자가 있을 경우 여분에서 교체하여 주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옆 시험실 또는 시험관리본부의 보관분을 구해 가능한 한 교체하여 준다.)

◎ 1교시 : 언어영역

우선 본격적인 시험시간에 앞서 유의사항을 들려주는데, 이때나 혹은 언어영역 시작하기 전에 남는 자투리 시간에 듣기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문제마다의 전략을 세운다. 그리고 나서 듣기문제를 해결하고, 쓰기문제를 풀고 어느 정도 머리가 "언어영역"적으로 돌아가고 나면, 언어영역에 대한 Tree를 그린다. Tree는 각 영역별로 제목과 작가 등을 써 놓으면 된다.

Tree를 그리게 되면, 언어영역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가 보인다. 그와 동시에 시간 배분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Tree의 순서대로 비문학(보통 비문학 문제가 더 쉽기 때문이다. 기존 수능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임)을 먼저 푼다. (즉,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언어/국어생활) 여기서 물론 만약에 자신이 예술이 강하다면 예술지문부터, 사회가 강하다면 사회지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문제와 지문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한다. 특히, 언어 영역의 지문은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많으므로 마지막 부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 1교시 쉬는 시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간다. 지난 시간의 문제들에 대한 것은 배뇨의 즐거움과 함께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정답에 관해 서로 절대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심호흡이나 먼 산 쳐다보기 등으로 안정

을 취하고 난 후, 다음시간 시험에 대비한다. 기지개 등을 켜거나 허리를 아래쪽으로 굽혀서 머리 쪽에 피가 몰리도록 하는 스트레칭 방법도 좋다. 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때 바로 머리에 윤향유를 칠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볼 시험에 대비해서 단 한 문제, 한 지문이라도 머리에 칠해서 머리가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든다. 우리의 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언어적인 것을 담당하는 영역과 수리적인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 언어적으로 돌아갔던 머리를 Mathematically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단 몇 개라도 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쉬는 시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다음 시간에 볼 시험과목에 대비하자.

◎ 2교시 수리영역

수리영역문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쉬운 객관식, ② 어려운 객관식, ③ 주관식"이 그것이다. 대체로 문제 번호로는 1번부터 17번까지 객관식이고, 18번부터 25번까지 주관식, 26번부터 29번까지가 다시 객관식, 30번이 주관식이다. 푸는 순서는 ①→③→②가 가장 좋다. 어디까지가 쉬운 객관식이나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 요지는 자신이 쉬운 부분부터 풀라는 것이다. 쉬운 문제를 풀면서 머리를 잘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주관식을 푼다. 주관식을 포기하는 것은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수학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수학을 아무리 잘하는 학생에게도 공통적이다. 그러면 그 쪽 면을 전체 skip(뛰어 넘기)해 버리자. 마치 가족오락관의 통과(pass)처럼! 그리고 나서 머리를 한 번 흔들고 나서 새로운 페이지를 푼다. 그러면 후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올 때 머리가 refresh 되면서 뜻밖의 풀잇법이 생각날 수도 있다. 막히면 돌아가라! 5분 넘게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야 한다.

◆ 점심시간

점심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고사실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따뜻한 물과 함께 도시락으로 싸온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나서 제자리에서 하는 스트레칭 체조로 가벼운 몸풀기를 한다. 고사장에 가면 담배

를 피우는 학생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데, 피우는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안 피우는 학생은 괜히 연기 마시지 말고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다음 시간에 볼 문제를 적어도 10분 이상 봐서 식후 졸리는 현상이나 긴장이 풀리는 현상에 대비하도록 한다.

◆ 오후 시험

- (1) 오후 시험은 지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오전 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반대로 오전 시험을 망쳤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오후 시험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마인드 컨트롤이 수능의 30%를 좌우한다.
- (2) 남은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임한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하자. "나는 평소의 실력을 몇 배 발휘하여 고득점을 얻는다." 시험 중에 졸리면 귀 뒤쪽 아래의 머리카락을 세게 당긴다. 소름이 끼치면서 잠이 깬다. 가장 확실하다.
- (3) 시험 시간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감독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며, 매사에 진지하게 임한다.

◎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손때가 묻은 문제집의 영어 지문을 2~4개 정도 읽는다. 그래야만 머리로, 입술도, 몸도 모두 영어가 달라붙기 때문이다. 문제지를 받으면 그 즉시 듣기 17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각각의 문제마다 전략을 세운다. 강조컨대, 듣기평가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예상해야 한다. 사람들 그림이 나와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하고, 몇 달리가 나와 있으면 거스름돈, 몇 시 몇 분이 나와 있으면 시간 등이 듣기평가의 내용이 될 것임을 미리 짐작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와 마찬가지로 안 풀리는 것은 과감히 건너뛰자. 더불어 평소에 시간 부족을 많이 느낀다면 장문독해부터 풀자. 한 지문을 못 읽으면 2~3문제를 고스란히 짚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 4교시 탐구영역

우선 자기가 자신 있는 문제부터 푼다. 자신이 강한 부분을 빨리 풀고 나서 어려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주어진 30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능은 초치기 시험이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 자유 시간에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답 맞춰보거나 잠담하지 말라. 몸에서 氣 빠져나간다.

◆ 시험을 마친 후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피로를 풀도록 한다. 수능시험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하고 도움을 주었던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감사한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저녁 식사 후에는 EBS 방송을 보거나, 서점에서 문제를 구해 가채점을 해 본다. 이후에는 가채점 결과를 보아가면서 대입 정보를 얻어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밤늦도록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아침 일찍 서둘러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즐거운 생각을 한다. 이때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내용들은 대개 작년도 자료이므로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



◎ 수능 당일 실수 줄이기 10계명

1.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실수를 최대한 줄여라.
2. 문제·지문을 완독하고 '그러나' 등 접속어에 유념하라.
3. 답은 배경지식보다 지문 보기에서 고르자.
4. 배점 높은 문제라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
5. 알파벳 b를 6, 착각하거나 부호(+, -)등을 혼동하지 말라.
6. 주관식의 숫자 답은 각 자리에 맞게 표기하라.
7. 듣기 때는 전 시간의 실수를 생각하지 말라.
8. 그래프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단위를 확인하자.
9. 쉬는 시간에는 되도록 화장실에 다녀오자.
10. '궁극적' 같은 말이 나올 땐 문제 의도를 다시 생각하라.

< 수능 시험 진행 순서 >

▶ 시험 시작

◎ 감독관 입실 (08:15)

시험 감독관은 08:15에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부감독관이 응시자에게 필기도구를 나누어주고 정감독관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예비령(08:25)

- 정감독관은 문답지 봉투를 포장지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개봉하여 문답지 수량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매수 확인 즉시 부감독관은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부
- 정감독관은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반드시 읽어 준 다음 지급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등 해당사항을 기재 및 표기하도록 한다.

(문제유형은 문제지를 받은 후 표기)

◎ 준비령(08:35)

- 정감독관은 수험생의 정면 중앙에 위치하여 수험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지시
- 부감독관이 문제지 홀수, 짝수형을 순서에 따라 엮어서 배부
- 배부 완료 후 수험생으로 하여금 배부된 문제지가 수험생 좌석배치도상의 문제 유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다를 경우 여분 문제지로 배부
- 문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 답안지 문제 유형 표기란에 홀수형 또는 짝수형 중 해당 유형을 "●"와 같이 표기하도록 한다.
- 타종과 동시 듣기평가가 방송되므로 수험생들로 하여금 방송청취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 타 종 : 교시 시간대별 타종은 다음과 같이 올리도록 함.

구 분	타 종	비 고
• 예비령	—	(길게 짧게 반복)
• 준비령	(짧게 두번 반복)
• 본 령	_____	(길게 계속)
• 종료령	(짧게 계속)

3. 수험생 유의 사항

1)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 가.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 시험은 미리 정해 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나.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 당일은 오전 8시까지)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 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

- 가. 수험생은 시험 당일(2010. 11. 18.)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 ※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 나.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 ※ 샤프 펜(샤프 연필심 규격은 0.5mm, HB, 흑색)은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개인적으로 샤프 펜 휴대는

불가능함)하며 샤프 연필심(0.5mm, 흑색에 한함)에 한해 필요한 경우 휴대할 수 있다.

※ 2, 3, 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 주민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라.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거나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mm),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시험 시간 중에는 소지할 수 없어 가방 등에 넣어 교실 앞쪽으로 내놓는 물품을 말함. (예 : 책자 등)

-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앞에 제출하고,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바.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은 1교시에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사. 1, 2,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하며, 4, 5교시는 문형의 구분이 없다.
 -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한다.
- 아. 1교시와 3교시는 본형 없이 듣기(말하기) 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
- 자. 시험 시간 중에 껌을 씹거나 엿을 먹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럽게 하여서도 안 된다. 특히 껌이나 엿 등의 이물질이 답안지 앞면이나 뒷면에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물질이 붙은 답안지는 전산 채점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게 됨).
- 차.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 카.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 타.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한다.

3) 답안지 기입(표기)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컴퓨터용 싸인펜 또는 지급받은 샤프 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한다.

※ 특히 연필 또는 샤프 펜으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 나.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수험번호」란에는 다음 <작성 예시>와 같이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의 숫자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되 숫자 '0'이 맨 위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표기한다.

<수험번호 작성 예시>

성 명				홍 길 동			
수험번호							
1	2	0	5	-0	7	1	3
	①	●	①	●	①	①	①
●	①	①	①	①	①	●	①
②	●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 바르게 표기한 것 0000●

□ 잘못 표기한 것

① 0●0●0 (2곳에 표기한 것)

② 0●0●0 (칼로 긁은 것, 불완전한 수정처리)

③ 00000 (지운 흔적이 있는 것, 불완전한 수정처리)

④ 00000 (주위만 표시한 것)

⑤ 00000 (가운데만 표시한 것)

- 라. 1, 2, 3교시의 경우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 ※ 표기한 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우고 수정한 후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한다.
- ※ 답란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는 필요시 감독관이 제공하며, 본인이 가져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바.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하여 오류 처리되는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
- 사. 2교시 수리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한다.
- ※ 2교시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란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2009학년도 까지는 OMR 카드의 일의 자리만 표기하도록 하고, 십의 자리에 ①을 표기한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십의 자리에 ①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

〈수리 영역 단답형 답안지 작성 예시〉

[예 1] 정답 : 102 [예 2] 정답 : 40 [예 3] 정답 : 50 [예 4] 정답 : 8

○			×			○			×			○			○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백	십	일
	●	0		0	0		0	●		●	0		0	●		0	0		●	0
●	1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	2	2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	4	●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	5	5	●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	8	8	●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의 선택과목 답란에는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 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 제3선택, 제4선택)와 답안지 선택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 제3선택, 제4선택)가 일치되게 답을 표기하여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OMR 답안지
제1선택 국사	“제1선택”에 국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제2선택 한국 지리	“제2선택”에 한국 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제3선택 정치	“제3선택”에 정치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선택과목 순서는 반드시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한다.

- 사회탐구 영역을 3과목(국사, 한국 지리, 정치)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국사를 제1선택의 답안지에 표기하고 이어서 제2선택과 제3선택 답안지에 한국 지리와 정치를 표기한다.
 - 직업탐구 영역에서 3과목(컴퓨터 일반, 공업 입문, 프로그래밍)을 선택하였을 경우도 답안지 표기 요령은 위와 동일하게 한다.
 - 채점은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순서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자.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수험표 스티커에 기입되어 있는 선택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을 표기한다.

〈탐구 영역 3과목 선택 수험생의 답안지 작성 예시〉

제 1 선택		제 2 선택		제 3 선택		제 4 선택	
문번	답 란						
1	① ② ③ ④ ⑤	1	① ② ③ ● ⑤	1	① ② ③ ④ ●	1	① ●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2	● ② ③ ④ ⑤	2	① ●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
3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 ⑤	3	① ② ● ④ ⑤	3	●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 ④ ⑤	4	● ② ③ ④ ⑤	4	●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 ④ ⑤	5	① ● ③ ④ ⑤	5	① ② ③ ● ⑤
6	① ② ③ ④ ⑤	6	●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	6	① ② ③ ● ⑤
7	① ② ③ ④ ⑤	7	① ● ③ ④ ⑤	7	① ② ③ ● ⑤	7	① ② ③ ● ⑤
8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 ⑤	8	● ② ③ ● ⑤	8	① ② ●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 ⑤	9	① ● ③ ④ ⑤	9	① ●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 ④ ⑤	10	① ② ③ ● ⑤	10	① ② ③ ● ⑤
11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 ④ ⑤	11	① ② ● ④ ⑤	11	① ② ●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	12	① ② ● ④ ⑤	12	① ② ●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3	① ● ③ ④ ⑤	13	① ● ③ ④ ⑤	13	① ●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	14	●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 ⑤
15	① ② ③ ④ ⑤	15	① ● ③ ④ ⑤	15	●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
16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 ④ ⑤	16	① ② ③ ④ ●	16	① ② ③ ④ ●
17	① ② ③ ④ ⑤	17	●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	17	① ●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 ⑤	18	●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
19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	19	① ② ● ④ ⑤	19	① ② ●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	20	① ● ③ ④ ⑤	20	● ② ③ ④ ⑤

제 1 선택		제 2 선택		제 3 선택		제 4 선택	
문번	답 란						
1	① ② ③ ● ⑤	1	① ② ③ ④ ●	1	① ● ③ ④ ⑤	1	① ② ③ ④ ⑤
2	● ② ③ ④ ⑤	2	① ●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 ⑤	3	① ② ● ④ ⑤	3	●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 ④ ⑤	4	● ② ③ ④ ⑤	4	●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 ④ ⑤	5	① ● ③ ④ ⑤	5	① ② ③ ● ⑤	5	① ② ③ ④ ⑤
6	●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	6	① ② ③ ●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 ③ ④ ⑤	7	① ② ③ ● ⑤	7	① ② ③ ●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 ⑤	8	① ② ③ ● ⑤	8	① ② ●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 ⑤	9	① ● ③ ④ ⑤	9	① ●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 ④ ⑤	10	① ② ③ ● ⑤	10	① ② ③ ●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 ④ ⑤	11	① ② ● ④ ⑤	11	① ② ●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	12	① ② ● ④ ⑤	12	① ② ●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3	① ● ③ ④ ⑤	13	① ● ③ ④ ⑤	13	① ●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	14	●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 ⑤	14	① ② ③ ④ ⑤
15	① ● ③ ④ ⑤	15	●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	15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 ④ ⑤	16	① ② ③ ④ ●	16	① ② ③ ④ ●	16	① ② ③ ④ ⑤
17	●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	17	① ●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 ⑤	18	●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	19	① ② ● ④ ⑤	19	① ② ●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	20	① ● ③ ④ ⑤	20	●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 과학·직업탐구 영역 3과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제1선택의 답란 부터 차례로 표기하여야 함.

4) 매 교시 수험 유의사항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가. 예비령이 올린 후

- 1)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용 사인펜(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안 됨)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및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입하고 확인한다.
- 2)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와 같이 표기한다.

나. 준비령이 올린 후

- 1)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문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한다.
 -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교시별 문제지 면 수는 다음과 같다.
 - 1교시 : 16면
 - 2교시 : •"가"형 - 16면
•"나"형 - 8면
 - 3교시 : 8면
 - 4교시 : •사회탐구 - 48면(16면 3세트)
•과학탐구 - 32면(16면 2세트)
•직업탐구 - 72면(16면 4세트, 8면 1세트)
 - 5교시 : 24면(16면 1세트, 8면 1세트)
- 2) 문제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입한다.
- 3)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각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한다.

※ 4교시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문제지 배부 시각

- 4과목 선택의 경우 : 14:45(준비령)
- 3과목 선택의 경우 : 15:22(준비령 없음)
- 2과목 선택의 경우 : 15:54(준비령 없음)
- 1과목 선택의 경우 : 16:26(준비령 없음)

다. 본령이 울린 후

- 1)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말하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한다.
- 2)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다.
- 3)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 4)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수험 요령이 다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참조

- 5) 시험 종료 10분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및 표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1, 2, 3교시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라. 종료령이 울린 후

-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 가. 4교시 응시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14시 40분(예비령)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나. 4교시에는 답안지 배부 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배부된다.

다. 4교시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문제지가 배부된다.

※ 사회탐구 : 3세트, 과학탐구 : 2세트, 직업탐구 : 5세트

라. 4교시 응시자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시간	4과목 선택자	3과목 선택자	2과목 선택자	1과목 선택자
14:50~15:20	제1선택과목 응시	대기	대기	대기
15:22~15:52	제2선택과목 응시	제1선택과목 응시	대기	대기
15:54~16:24	제3선택과목 응시	제2선택과목 응시	제1선택과목 응시	대기
16:26~16:56	제4선택과목 응시	제3선택과목 응시	제2선택과목 응시	제1선택과목 응시

마.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시간은 2분이다.

바. 시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는다.(봉투에 넣을 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가 위에 오도록 순서대로 정돈하여 넣는다.)

사. 수험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OMR답안지의 답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아. 1~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6) 부정행위

가. 부정행위 유형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 5) 수능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확인한 부정행위는 필요 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 ※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

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처리됨.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8호, 2006. 8. 21)
 - 가)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나)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4. 수능일 대응방안

가. 수능일 식사관리

동물성 지방보다는 콩, 두부, 살코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평상시처럼 먹는 것이 좋다. 수능시험 시간이 최소한 80분 이상 매우 길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은 수능 전날부터 피한다.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은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콜라와 이노제 약물, 드링크, 맥주 등이므로 가급적 적게 섭취해야 한다.

- ① 아침은 평상시 먹는 대로 적당량을 먹는다. 국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봐야 하므로 수분이 많은 음식은 자제한다.
- ② 커피류는 이노 작용이 강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하므로 조금만 마신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콜라, 드링크는 금한다.
- ③ 시험은 두뇌의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므로 글루코스가 많은 초콜릿, 비스킷 등을 준비하여 먹는다.
- ④ 점심식사는 가급적 도시락을 준비하되(가급적 부모님이 챙겨준다)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반찬으로 따뜻한 국을 준비한다.
- ⑤ 찬 음식은 위생상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나. 시험 불안 관리

시험 불안은 대부분 주위의 지나친 기대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수험생 본인이다. 지난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불안과 수능 성적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시험 불안이 높은 수험생들이 그렇지 않는 수험생들보다 9.7점이 나 덜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불안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 ① 모두 맞겠다거나 더 맞겠다든 생각을 버려라. 아는 문제만 맞고 모르는 문제는 운에 맡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역별로 최대 〇〇 문제는 틀려도 좋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사전에 틀려도 좋을 문제 수를 예상

하고 있다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할 일이 없게 된다. 전략적으로 틀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 ② 문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말라. 문제가 어려우면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점수보다 석차가 중요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쉽거나 더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제가 어려울수록 침착해야 한다.
- ③ 자신감을 가져라. 그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라.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도 말라. 뿌린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1점이라도 더 욕심 내지 않으면 행운이 따라줄 수도 있다.

다. 수능일 여학생의 생리 조절 (시험날 생리인 경우)

수능날 생리 예정인 경우 빈혈약을 미리 복용하면 생리현상으로 인한 통증 및 불편한 증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는 평상시에 먹는 진통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주의 사항은 대부분 진통제는 근육 이완까지 시켜 수능날 졸리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복용하였던 생리통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 ① 생리통이 심한 경우: 며칠 전부터 액체 빈혈약을 1일 1개씩 먹으면 생리가 원활하게 나오며 크게 불편한 것도 없다.
- ② 생리 연장은 7-5일전부터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미리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구입한다.

라. 수능일 변비

변비가 있을 경우 변비약은 대부분 장의 통증을 유발하므로 유산균 제재를 다량 복용하면 좋다. 먹는 변비약은 복용 후 6시간정도 지나면 변을 볼 수 있으며 수능 전날 복용하면 수능 시험장에서 변을 볼 수 있으므로 수능 전날은 복용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문에 넣은 관장약을 사용한다.

마. 손쉬운 지압-집중력 쑥쑥

수험생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압법을 경희대 한방병원 소아과 이진용 교수의 도움말로 소개한다. 지압부위가 빠근하게 느껴지도록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도록 한다. 지압 횟수는 12→24→36회로 늘리도록 한다.

바. 머리가 아플 때

정수리에서 상하좌우로 2cm 정도 떨어진 네 부분을 눌러준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긴다.

머리가 무겁고 자주 졸리면 발바닥 중앙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누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왼발과 오른발을 교대로 해 준다.

사. 눈이 피로할 때

눈을 감은 뒤 눈썹 사이, 눈썹 바깥쪽, 눈동자 아래 2cm 지점의 움푹 파인 곳을 눌러준다.

지압이 끝나면 바로 눈을 뜨지 말고 10초 정도 후 서서히 뜨도록 한다.

아. 목이 뻐뻐할 때

뒷목 중앙과 양 옆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누른다. 지압이 끝나면 목을 가볍게 좌우로 돌려주도록 한다.

자. 배가 아플 때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 움푹 팬 곳을 눌러준다.

체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올 때도 좋다.

차. 수능일 복장

추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 수험장소에 따라 난방이 잘 될 수 있으므로 더울 때 하나씩 벗을 수 있으면 좋다.

5. 시험 시간표 및 시험 진행(일반 수험생)

구 분		시 간	비 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 : 10까지	
1 교 시	감독관 입실	08 : 10	- 시험실 책상 및 개인 소지품 정리·정돈 - 감독관은 유의사항 설명, 컴퓨터용 사인펜 등 지급 - 책상에 부착된 문제 유형 확인 -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 해당교시 미선택자 확인
	예비령	08 : 25	- 감독관은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문형, 필적확인란 등 기입 및 표기
	준비령	08 : 35	- 감독관은 문제지 배부 - 문제지의 문형 확인 - 문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입
	음질테스트 및 듣기평가 안내 방송	08 : 37~08 : 40(3분)	
	본 령	08 : 40(타종 없음)	
	언어 영역 ※ 듣기평가 15분 이내	08 : 40~10 : 00(80분)	- 듣기평가 후 답안작성 시작 - 감독관은 결시자 등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0 : 00	
휴 식		10 : 00~10 : 20(20분)	- 2교시 미 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 시험이 끝난 수험생은 귀가
2 교 시	예비령	10 : 20	- 1교시와 같음
	준비령	10 : 25	- 1교시와 같음
	본 령	10 : 30	
	수리 영역	10 : 30~12 : 10(100분)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감독관은 결시자 등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2 : 10	

구분	시간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 : 10까지	
점심	12 : 10~13 : 00(50분)	- 3교시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 시험이 끝난 수험생은 귀가
3교시	예비령	13 : 00 -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 1교시와 같음
	준비령	13 : 05 - 1교시와 같음
	음질테스트 및 듣기·말하기평가 안내 방송	13 : 07~13 : 10(3분)
	본령	13 : 10(타종 없음)
	외국어(영어) 영역 ※ 듣기말하기평가 20분 이내	13 : 10~14 : 20(70분) - 1교시와 같음 - 감독관은 결시자 등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4 : 20
휴식	14 : 20~14 : 40(20분)	- 4교시 미 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 시험이 끝난 수험생은 귀가
4교시	예비령	14 : 40 -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문제지는 단일 유형임)
	준비령	14 : 45 -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본령	14 : 50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14 : 50~16 : 56(126분) -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 감독관은 결시자 등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시험시작 후 30분이 지나면 종료령이 울리며 종료령이 울리고 2분 후 본령이 울림
	종료령	16 : 56
휴식	16 : 56~17 : 55(19분)	- 5교시 미 선택자는 귀가
5교시	예비령	17 : 15 - 1교시와 같음(문제지는 단일 유형임)
	준비령	17 : 20 - 문제지 배부
	본령	17 : 25
	제2외국어/한문 영역	17 : 25~18 : 05(40분)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감독관은 결시자 등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8 : 05
합계	시험시간 416분	

VI. 수능 전후의 건강관리

1. 수능 직전 컨디션 조절법

바로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은 식욕이 감퇴되고, 잠도 오지 않고, 책을 보아도 집중이 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답답하고 쓰리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빠근하고 어깨도 결리고 특히 변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에 쫓겨 화장실 갈 시간을 놓치고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과자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다 보니 변비에 걸린 수험생이 많다.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기간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동안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의 여부가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 수험생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는 수험생, 부모 등 가족은 수면과 영양섭취,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수면시간을 줄이고 공부계획을 짜는 무리를 하기 쉽다. 그러나 갑자기 수면시간을 줄이면 인체리듬이 깨져 오히려 학습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 인간의 정신활동은 주기적인 생체리듬을 지니며 이러한 생체리듬의 태엽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수면이다.

□ 효과적인 수면관리

- ① 자신의 생활리듬에 맞춰 평소 같이 잠을 자되, 5-6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야 낮에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 ② 다만 지나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습관을 지닌 수험생이라면, 수능시험 당일날에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 전부터 기상 시간을 수능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하자.
- ③ 밤에 숙면을 못했다면 낮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틈나는 대로 잠을 청하자. 낮잠은 누워 20분 이상 자지 않는 게 좋다.
- ④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심해 밤잠을 설치는 학생은 가벼운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숙면을 할 수 있다.

- ⑤ 커피 등 각성제는 습관이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쌓인 피로를 풀 수 없다.
- ⑥ 수면 환경은 온도 15~20도, 습도 50~60% 정도가 좋다.
- ⑦ 수면금지 시간대(평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는 잠들기 가장 어려운 시간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과 함께 수험생의 컨디션 유지는 식사를 통한 영양관리이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육체노동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야 한다.

□ 효과적인 식사관리

- 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굶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아침을 안 먹으면 오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 ② 원활한 두뇌기능과 신진대사를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등을 섭취하자.
- ③ 수험생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소화기능이 저하되고 식욕도 떨어지므로 소화되기 쉬운 음식이 좋다.
- ④ 편안한 기분으로 충분히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는 여유를 가져보자.
- ⑤ 과식을 하게 되면 뇌의 활동이 둔화되고 집중력도 떨어지므로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가 좋다.
- ⑥ 만성피로나 수면 부족시에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좋다.

□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 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오늘에 충실하자. 먼 미래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하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수능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라

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②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해보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눈을 뜨자마자 시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창밖을 보라. 푸른 하늘 나무, 그리고 멀리 산을 바라보자.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해보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자.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보자. 한결 기분이 상쾌해질 것이다.
- ③ 공부는 자기 나름의 마무리 계획에 자신감을 가지자. 시험이 임박해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것은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
- ④ 휴식을 취하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학습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몸이 아주 피곤할 때는 학습능률이 떨어지고 억지로 계속하려고 하면 피로만 누적된다. 휴식은 정신과 육체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
 - 공부가 잘 안될수록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관적인 상상을 해보자.
 - 1시간 단위로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 잠시 산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도 좋다.
 - 아니면 5분간 눈을 감고 쉬어보자. 즐거운 일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눈의 피로도 풀리면서 집중력이 높아진다.
 - 책상에 오래 앉아 공부를 할 경우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고, 근육 기능이 떨어지므로 1시간 단위로 한 번씩은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이나,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자.
 - 짧은 시간 잠을 자거나 샤워나 목욕을 해보자.
 - 평소 하던 음악 감상이나 독서 등 취미생활에 잠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다. 다만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장소나 놀이는 삼가는 것이 좋다.
- ⑤ 하루 30분 정도 운동시간을 가지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산책이나 달리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몸에 자극이 되어 집중력이 향상되고 컨디션도 좋아진다. 특히 다리에서 오는 감각자극은 신경을 통해 뇌를 각성시키는데 효과가 좋다.

- ⑥ 온종일 책과 씨름하다보면 눈도 침침해진다. 눈에 피로가 오면 눈 주변에 원을 그리듯이 집게 손가락으로 눌러 주되 간간이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눈 사이의 코뼈를 문질러 주는 마사지 요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을 번갈아 보는 눈 운동도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⑦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할 경우, 복식호흡으로 긴장완화를 시도한다. 방법은 천장을 보고 누워 양 무릎을 세운 다음 한 손을 배꼽 위에 놓고 다른 손은 자연스럽게 놓는다. 이어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약간 벌린 입술사이로 더 천천히 숨을 내신다.
- ⑧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자. 편안하게 생각되는 사람이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 자신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점

- ① 적절한 긴장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수험생의 능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말자.
- ③ 먹을거리, 입을 거리, 잠자리 등에서도 되도록 큰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한다.
- ④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초조해져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기 쉬운데 이것을 피하자.
- ⑤ "애야 좀 쉬면서 공부해라" 등 너무 걱정하여 잘해 주려는 말들도 수험생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 ⑥ 시험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⑦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힘든 점을 인정해주고,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기도록 하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격려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2. 긴장을 다스리는 방법

- '긴장 다스리기' 대책 마련을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S고 선생님들은 한 학생의 몰락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교내 최상위권이었고 모의고사에서 390점대를 유지했던 K군이 수능에서 320점 수준으로 추락한 것. 매년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진 경우는 보기 힘든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삼수생 J양도 큰 시험에 유달리 약한 케이스. 언어듣기 1번에서 실수한 여파로 결국 삼수에까지 이른 안타까운 학생이었다. 지나치게 긴장한 탓에 쉬운 첫 문제를 놓쳐 당황했고 평소 완벽했던 언어듣기에서 3문제나 틀렸다. 당연히 언어영역은 망쳤고 상심한 끝에 다른 과목도 실력발휘가 어려웠다.

실전에 약한 아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간이 콩알만한 아이들'. 이들은 평소에 소심하고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소화가 잘 안 된다. 큰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지고 전날 밤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긴장이 최고조가 되는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전엔 심장박동이 가슴을 울릴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진땀이 날 정도다. 1교시를 망치고 쉬는 시간에 울고 있는 여학생들은 대개 이런 유형이기 쉽다. 대부분 소음인인 이런 학생들에겐 심장의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진무탕 등을 쓰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지나친 긴장 탓에 머리 쪽으로 혈류량이 과도하게 몰리게 돼도 시험을 망칠 수 있다. 성격이 급하고 체질적으로 기운이 상체로 잘 몰리는 소양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선 차분하게 시험을 볼 수 없고 실수도 빈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장의 결상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아서 다리에 힘을 주는 기마 자세를 취하면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

9월 2일에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의 마지막 모의고사인데다가 지난해의 경우 이 모의고사와 수능이 유형과 수준면에서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에서 긴장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은 남은 두 달 이내에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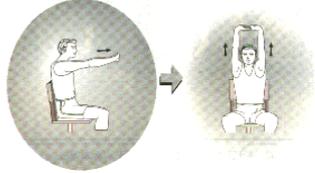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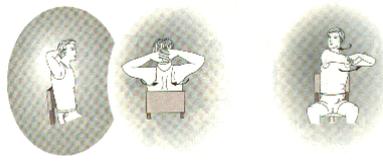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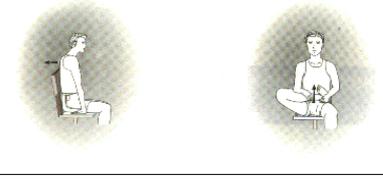
긴장을 이완시키는 심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배울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마인드컨트를 혹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수능 전날에야 "아이가 너무 긴장하는 것 같은데 우황청심환을 먹여도 되느냐"고 문의하는 부모의 무대책은 곤란하지 않을까.



◎ 2011 수능 파이널 10계명

1. 시험 현장의 분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한다.
2. 어떤 영역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3.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본다.
4. 약점 체크는 필수다. 오답노트를 활용한다.
5. 학습리듬을 수능 당일 일정에 맞추고,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6. 핵심 단원에 집중하고, 과욕을 버린다.
7.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 집중력을 키운다.
8. 난이도를 예단하지 말고, 고르게 공부한다.
9. 새로운 문제에 접할 때, 이미 하는 것과 결부시켜 해결한다.
10. 시사문제를 대할 때 사소한 지식에 연연하지 않는다.

■ 책상에서 하는 스트레칭 ■

	<p>양손을 깍지낀 채 앞으로 최대한 뻗었다가 다시 머리위로 올린다.</p>
	<p>양팔을 머리 위쪽으로 쪽 편 채 좌·우로 천천히 숙여준다. 머리 뒤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손으로 잡고 어깨와 상완 뒷부분을 부드럽게 당긴다.</p>
	<p>앞은 자세에서 등을 똑바로 세우고 목에 긴장을 푼 채 좌·우 차례로 6번씩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돈다.</p>
	<p>머리 뒤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를 나란히 편다. 왼손으로 오른팔의 팔꿈치를 잡고 오른쪽 어깨 넘어 쪽을 보면서 외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당긴다.</p>
	<p>손바닥을 의자 위에 놓고, 전완 부분이 늘어나도록 천천히 편 팔을 뒷쪽으로 보낸다. 앞은 자세에서 발목을 앞·뒤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준다.</p>
	<p>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긴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양팔과 머리를 앞쪽으로 천천히 내린다. 내린 자세에서 힘을빼고 45~50초간 정지한다.</p>

■ 방에서 할 수 있는 체조 ■

	<p>목에 긴장을 풀고 좌, 우 차례로 5번씩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린다.</p>
	<p>양손을 깍지 낀 채 머리위로 최대한 뻗는다.</p>
	<p>엉덩이 뒤에서 양손을 깍지 빼 편 상태로 최대한 뒤로 보낸다.</p>
	<p>머리 뒤에서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왼쪽으로 팔을 바꾸어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한다.</p>
	<p>가슴 앞에서 오른발을 앞. 뒤로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주고, 발을 바꾸어 동일하게 실시한다.</p>

	<p>한쪽 발바닥을 지면에 댄 채 장단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엉덩이를 벽 쪽으로 천천히 들어민다. 이 자세를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 동일하게 실시한다.</p>
	<p>양손으로 몸 뒤에서 문틀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밀어 자세를 유지한다.</p>
	<p>등을 대고 누워서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잡아당긴 자세를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 실시한다.</p>
	<p>양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잡고 양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세운다. 머리가 지면에서 30cm정도 떨어지도록 머리를 끌어당긴 채 정지동작을 유지하며 호흡을 멈춘다.</p>
	<p>양팔과 양다리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뻗은 자세로 정지한다.</p>

Ⅶ. 수능 궁금증 Q & A

1. 예비소집에는 꼭 가야하나요?

꼭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실의 위치, 자리 위치에 따른 추위(옷 입기에 참고) 예상, 화장실 확인, 교통편 및 소요시간 확인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놓으면 수능 시험 당일 마음이 그만큼 편안합니다.

2. 시험장에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8시 10분에서 조금 늦더라도 입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시작된 이후(8시 40분)에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119나 경찰차를 타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가야합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 8시 10분에 조금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3.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0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까?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0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고 있으면 시험 감독관이 입실하여 개인소지품 정리, 수험생 유의사항 설명,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 지급 및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반드시 08: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4.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당일은 오전 8시까지)하여 재발급 받아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5. 예비마킹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빨간색 볼펜이나 플러스펜, 연필 등의 예비 마킹은 불가능합니다. 샤프연필은 덧칠하거나 지우기만 하면 문제없지만 만약 지우는 것을 잊을 경우 오답 처리되니 연필이나 지우개 사용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비마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6.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 시간에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 시간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외국어(영어), 탐구영역을 선택한 경우에는 언어영역 시험에 응시한 후 수리영역 시험시간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외국어(영어) 및 탐구영역에 응시하면 됩니다.

대기실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시험시간에 임의로 대기실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7. 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경우 선택과목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별 순서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선택과목 순서별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윤리, 한국지리, 국사, 세계사를 선택한 경우에 그 수험생은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윤리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국사, 한국지리를, 마지막으로 세계사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응시 순서〉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 (최대 4과목 선택가능)		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최대 4과목 선택가능)		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 (최대 3과목 선택가능)			
01	윤리	12	물리 I	20	농업 정보 관리	24	농업 이해
02	국사	13	화학 I	21	정보 기술 기초	25	농업 기초 기술
03	한국 지리	14	생물 I	22	컴퓨터 일반	26	공업 입문
04	세계 지리	15	지구과학 I	23	수산·해운 정보 처리	27	기초 제도
05	경제 지리	16	물리 II	※ 주의사항 위 4과목 중 최대 1과목 선택 가능	28	상업 경제	
06	한국 근·현대사	17	화학 II		29	회계 원리	
07	세계사	18	생물 II		30	수산 일반	
08	법과 사회	19	지구과학 II		31	해사 일반	
09	정치	※ 주의사항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과목은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32	해양 일반	
10	경제				33	인간 발달	
11	사회·문화				34	식품과 영양	
					35	디자인 일반	
					36	프로그래밍	
						※ 주의사항 위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8. 시험 전에 문제 미리 풀면 안되나요?

대개 시험 전에 모두 문제지를 배부하고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9. 답안지는 종료 10분전 이후에는 바꿔주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치기 전에 재작성이 가능하면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가급적 10분전에 마킹을 시작하고 주의하여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꾸어주지 않아도 감독교사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10. 컨닝하면 안되나요?

컨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옆의 학생이 꼭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시험 시간에 화장실가면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감독교사가 화장실까지 따라 갑니다.(허락해 주는 경우). 쉬는 시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독교사에 따라 허락해 주기도 하지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문제 푸는 시간이 줄고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12.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없나요?

시험 문제지는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답안 채점을 위해서 시간이 남으면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굳이 답을 적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13. 시험 이후 문제와 답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가 정답을 아는 데는 가장 빠릅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자동 채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음날 조간신문에는 문제와 정답이 발표됩니다. 적어오지 못 했을 경우 문제를 보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14. 수능성적 통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성적 통지는 2010년 12월 8일(수) 응시자 1인당 개인별 성적통지표 1매(수험생 보관용)가 배부됩니다.

올해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산정보센터에서 성적관련 파일을 원서접수 장소(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출신학교)로 제공하면 이를 출력하여 수험생에게 제공합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되고, 성적통지표 뒷면에는 성적자료에 대한 설명 기재됩니다
2011학년도 성적통지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길동	920101-1087654	한국고 (0009)					
구분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어) 영역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
		가형 (미분과 적분)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I
표준점수	131	137	141	53	64	61	73	69
백분위	93	95	97	75	93	87	97	95
등급	2	2	1	4	2	3	1	2

※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선택 과목의 빈칸은 '-'로 표기하고, 영역/선택과목 선택 후 결시한 경우는 '*'로 표기함.

<뒷 면>

- 표준점수 : 원점수(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합한 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수험생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 점수

$$\text{표준점수} = 20(\text{또는 } 10) \times \left(\frac{\text{수험생의 원점수} - \text{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원점수 평균}}{\text{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원점수 표준편차}} \right)$$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표준점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표준점수는 과목당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함.
-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와 응시집단 간 능력의 차이를 조정하여 표준화한 점수임.
-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백분위 :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
 - 백분위는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등급 :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의 분포를 9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함.
 - 등급 구분 점수에 놓여 있는 동점자에게는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부여함.
-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신 고등학교에는 성적일람표 파일을 전송하여 성적확인 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며, 검정고시생 등의 성적일람표 파일은 시·도교육청에 전송

15.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떻게 알아 보나요?

그날 서비스하는 지원 가능대학은 모두 부정확한 자료(전년도 수능 성적에 의거)로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략이라도 알려면 가채 점 결과가 나오는 19일이 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점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 관심 가지면 됩니다.

16.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시 휴대 가능 물품/금지 물품은 무엇 인가요?

휴대 가능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지급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 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모든 전자기기	샤프 펜 (4개의 샤프 연필심을 넣어 제공), 컴퓨터용 사인펜



VIII. 수능 이후의 대입준비와 시간 관리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수능을 보고 그 허탈감이나 배신감 혹은 자족이나 후회 등의 감정으로 며칠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들을 이성을 회복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최선인지를 생각해 보고 차분히 준비에 하는 것이 좋다.

주요 내용		일경	
수능 시험일		11.18(목)	
수능성적 통지일		12.8(수)	
모집	접수기간	"가", "나", "가나"군 12.17(금) ~ 22(수) (6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12.18(토) ~ 23(목) (6일)	
	군별 전형 기간	"가"군 2010.12.27(월) ~ 2011.1.10(월) (15일)	
		"나"군 2011.1.11(화) ~ 20(목) (10일)	
		"다"군 2011.1.21(금) ~ 2.1(화) (12일)	
	합격자 발표		2011.2.1(화)까지
	등록기간		2011.2.7(월) ~ 9(수) (3일)
	미등록 충원기간		2011.2.22(화)까지 *등록기간 : 2009.2.16(월)까지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10.12.3(금)
	추가 모집	전형기간	2011.2.23(수)~28(월) (6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결정·시행

◆ 수능 이후의 대입준비 ◆

1. 수시모집 2차 지원여부를 결정하라.

대학의 수시 모집은 대부분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수능에서 예상과는 달리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수시 2차 모집을 공략해볼 수 있다. 수시 2학기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일지라도 수능 가채점 결과에 의해 수시 2차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마지막 수시 모집을 공략해보도록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올 입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시2학기 모집 중 수시 1차와 2차로 분할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시2차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은 수시 2차 원서접수를 수능 후에 마감하여 수험생들이 본인의 수능성적을 토대로 하여 다시 한 번 지원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30 이후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대학〉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0.20	대전가톨릭대	충남	일반학생		10.18-20
	대전대[1차]	대전	재외국민·외국인	10.18-20	10.18-20
	명신대[1차]	전남	일반학생, 체육, 국가유공자 및 자손, 학교장·교사추천자, 만학도 및 주부,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기회균형선발제	9.8-10.20	9.8-10.20
	인제대[1차]	경남	체육특기자		10.18-20
	한국해양대	부산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10.18-20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0.21	공주교대	충남	고교성적우수자, 지역인재선발, 학교장추천자, 농어촌학생	10.19-21 예정	
	충신대	서울	외국어(영어), 선·효행자, 자기 추천제, 성경경시대회수상자, 사회 복지기관 또는 교사·선교사 등 경력자, 대안학교출신자, 농어촌 목회자 자녀, 재외국민과 외국인, 실업계고교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10.18-21	
10.22	경동대[2차]	강원	일반학생	10.11-22	10.11-22
	경북대(상주)	경북	순수외국인(정원외)	10.1-22	
	경북외국어대 [1차]	대구	일반학생, 어학·체육특기자, 학교 장·교사추천자, 만학도 및 주부, 전문계고교출신자	9.8-10.22	9.8-10.22
	예월예술대 [2차]	전북	일반전형,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10.11-22	10.11-22
	용인대[2차]	경기	예체능실기우수자, 체육우수자, 취업자, 만학도	10.18-22	
	우석대[2차]	전북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10.21-22
	중앙승가대	경기	성직자(스님)		10.11-22
	한중대[2차]	강원	일반학생, 학교장·교사 추천자, 해외유학생, 지역할당 및 지역 고교 출신자, 전문계고교출신자	10.6-22	10.6-22
10.24	대전신대	대전	일반학생	9.20-10.24	9.20-10.22
10.27	목원대[1차]	대전	재외국민		10.25-27
	원광대[2차]	전북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10.18-27	
10.28	서울시립대 [2차]	서울	코스모폴리탄리더, 사이언스파이 오니아, 서울고교우수인재	10.22-28	
	영남대	경북	재외국민·외국인(정원외)		10.25-28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0.29	관동대[2차]	강원	일반학생, 사회봉사자 및 자녀	10.20-29	10.20-29
10.30	군산대[1차]	전북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10.26-30
10월중	한경대[2차]	경기	일반학생	10월중	10월중
11.02	서남대(남원) [2차]	전북	교사 및 자기 추천자	10.6-11.2	10.6-11.2
	서남대(아산) [2차]	충남	교사 및 자기 추천자	10.6-11.2	10.6-11.2
	신경대[2차]	경기	일반학생	10.6-11.2	10.6-11.2
11.03	춘천교대	강원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 농어촌학생, 특수 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1-3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시장·군수 추천자		11.1-3
	한려대[2차]	전남	일반학생	10.18-11.3	10.18-11.3
11.05	군산대[2차]	전북	간호과 남자, 대안학교출신자,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 자녀, 전문계고교출신자, 인문계고 교출신자, 교사추천 일반계고교 (입학사정관), 교사추천 전문계고 교(입학사정관), 교사추천 대안학 교출신고교, 특수교육대상자(입학 사정관), 기회균형선발제(입학사 정관)	11.1-5	
11.08	한동대[2차]	경북	성장잠재력우수자(자기추천), 어학(영어)특기자, 지역학생, 사회 기여자 및 배려자, 농어촌학생 (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정원외)	11.1-8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12	동국대(경주)	경북	재외국민 및 외국인		11.1-12
	선문대[1차]	충남	재외국민과 외국인		11.1-12
	추계예술대 [2차]	서울	일반학생	11.8-12	
	한북대	경기	재외국민(정원외), 순수외국인 (정원외)		11.1-12
	한일장신대 [2차]	전북	일반학생, 교사 및 목회자 추천자,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11.1-12	11.9-12
11.19	한국국제대 [2차]	경남	일반전형(기타고교, 시지역일반계 고교)	11.1-19	11.1-19
11.22	가톨릭대[2차]	서울	일반학생	11.19-22	
	강남대[2차]	경기	일반학생, 취업자, 특수교육대상 자, 기회균등선발, 학업성적우수 자, 지역우대	11.16-22	
	경기대(서울) [2차]	서울	일반학생(논술), 경기감성리더, 사회경력자	11.19-22	
	경기대(수원) [2차]	경기	일반학생(논술), 사회경력자, 경기 감성리더	11.19-22	
	국민대[2차]	서울	특정과목우수자, 교과성적우수자	11.19-22	
	대구외국어대 [2차]	경북	일반전형, 자기추천자, 영어·일본 어·중국어우수자	11.12-22	11.12-22
	명지대(서울) [3차]	서울	일반학생	11.20-22	
	명지대(용인) [3차]	경기	일반학생	11.20-22	
	을지대(성남) [2차]	경기	일반전형, 교과성적우수자, 기회 균형선발	11.16-22	
	인천대[2차]	인천	지역우수인재(수도권), U I 차세 대리더, 기회균형선발제, 특수교육 대상자, 재외국민, 외국인	11.19-22	
	조선대[2차]	광주	일반학생, 간호학과 남학생, 특수 교육대상자, 미술, 무용, 체육학부 태권도학과	11.19-22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23	건국대(서울) [2차]	서울	수능우선학생부	11.19-23	
	경원대[2차]	경기	일반전형, 취업자·공무원, 교과성 적우수자, 교과성적우수자 (G2+N3)	11.17-23	
	광운대[2차]	서울	교과성적우수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체육특기자(축구), 재외국민	11.19-23	
	극동대[2차]	충북	일반학생, 사회봉사자, 특기우수자, 전문계고교출신자	11.18-23	11.18-23
	남서울대[2차]	충남	일반학생, 학교장·교사추천자	11.19-23	11.23
	단국대(죽전) [2차]	경기	논술우수자	11.19-23	
	단국대(천안) [2차]	충남	일반학생, 대학소재지역고교출신 자, 의학지역우수자	11.19-23	
	덕성여대[2차]	서울	학생부우수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11.19-23	
	동덕여대[2차]	서울	일반학생	11.19-23	
	백석대[2차]	충남	일반전형, 추천자, 미선계글로벌인재	11.10-23	11.23
	상지대[2차]	강원	일반학생	11.19-23	
	성신여대[2차]	서울	일반학생, 성신글로벌인재2, 의과학인재	11.20-23	
	수원대[2차]	경기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11.19-23	
	숙명여대[2차]	서울	논술우수자	11.19-23	
	숭실대[2차]	서울	학생부우수자, 국제화2, 이공계우수자	11.19-23 예정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23	원광대[2차]	전북	일반학생, 영어·중국어·일본어, 체육, 사회기여자, 자매결연지역, 지역인재, 농어촌학생(정원외), 전문계고교졸업자(정원외), 문예, 국악, 음악, 미술, 무용, 정보·발명가 또는 기능우수자, 미용, 조리·패션	11.18-23	11.23
	전주대[2차]	전북	일반학생, 국가사회기여자/만학도·주부·취업자, 전문계/대안학교출신자, 지역인재균형선발, 재외국민·외국인(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11.16-23	11.23
	차의과학대 [1차]	경기	일반전형	11.19-23	
	한국기술교대 [2차]	충남	일반학생	11.19-23	
	한림대[2차]	강원	일반학생, 광역자치단체장추천, 입학사정관(특수교육대상자), 입학사정관(기회균형선발)	11.19-23	
11.24	경남대[2차]	경남	일반전형, 지역인재, 학교장추천자, 만학자	11.19-24	
	경주대[2차]	경북	일반전형, 사회봉사자, 담임교사추천자, 학교장추천자, 지역연고자, 인문계고교출신자	11.17-24	11.17-24
	광주대[2차]	광주	일반학생, 피아노·관현악·성악·실용음악보컬, 선·효행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글로벌인재	11.19-24	11.19-24
	광주여대[2차]	광주	일반학생, 자매결연 및 산학협력기관장 추천, 기능우수자(특기·자격증·경력), 만학도 및 주부, 전문계고교출신자,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자, 기회균형선발제	11.19-24	11.19-24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24	남부대[2차]	광주	일반학생, 학교장(담임·기관장) 추천자,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입상자, 전문계고교출신자, 지역인재선발,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층	11.19-24	11.19-24
	대불대[2차]	전남	일반학생, 추천자	11.19-24	11.19-24
	동신대[2차]	전남	일반전형, 음악, 미술, 체육, 연기·영상·방송, 동신리더선발(입학사정관), 간호학과 남학생	11.19-24	
	동양대[2차]	경북	일반전형,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	11.19-24	11.19-24
	목포가톨릭대 [2차]	전남	일반학생, 목포지역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	11.19-24	11.19-24
	성공회대[2차]	서울	일반학생	11.20-24	
	아주대[2차]	경기	학생부우수자	11.19-24	
	우석대[2차]	전북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농어촌학생(정원외),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제(정원외)	11.15-24	11.23-24
	이화여대[2차]	서울	학업능력우수자, 스크랜튼학부 I	11.22-24	
	초당대[2차]	전남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자녀, 전문계고교출신자	11.19-24	11.19-24
	한국항공대 [2차]	경기	학업성적우수자, 항공종사자의 자녀	11.19-24	
	호남대[2차]	광주	일반학생, 체육,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전문계고교출신자, 재외국민·외국인	11.19-24	11.19-24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25	경성대[2차]	부산	리더십	11.22-25	
	김천대[2차]	경북	일반전형, 추천자	11.19-25	11.19-25
	동국대(경주) [2차]	경북	학업성적우수자	11.22-25	
	동국대(서울) [2차]	서울	학업성적우수자	11.22-25	
	목원대[2차]	대전	일반전형	11.19-25	
	서울시립대 [3차]	서울	서울유니버시안, 차세대리더	11.19-25	
	서원대[2차]	충북	일반전형, 교사추천자Ⅱ, 지리올림 피아드대회입상자, 교직원 자녀	11.19-25	
	영동대[2차]	충북	일반학생, 국가유공자 및 자손	11.23-25	11.19-25
	위덕대[2차]	경북	일반전형, 순수외국인(정원외)	11.19-25	11.19-25
	중원대[2차]	충북	일반전형	11.19-25	11.19-25
	한성대[2차]	서울	학생부우수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11.22-25	
	호원대[2차]	전북	일반학생	11.19-25	11.22-25
11.26	가야대(고령) [2차]	경북	일반전형	11.15-26	11.15-26
	가야대(김해) [2차]	경남	일반전형	11.15-26	11.15-26
	건국대(충주) [2차]	충북	학생부우수, 디자인조형실기, 특수교육대상자	11.19-26	
	경동대[3차]	강원	일반학생	11.15-26	11.15-26
	경운대[2차]	경북	자기추천자	11.22-26	11.22-26
	관동대[3차]	강원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11.19-26	11.19-26
	대전대[2차]	대전	일반학생	11.19-26	11.19-26
	배재대[2차]	대전	일반학생	11.19-26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26	부산가톨릭대 [2차]	부산	과목우수자, 인문계자매교출신자	11.22-26	
	성결대[2차]	경기	일반전형	11.22-26	
	성민대[2차]	충남	일반학생, 학교장·교사 추천자, 목회자추천자	11.1-26	11.1-26
	세명대[2차]	충북	일반학생, 인문계고교	11.19-26	11.26
	영산대(경남) [2차]	경남	전문고교, 인문고교, 자매결연 전문고, 자매결연인문고	11.19-26	11.19-26
	영산대(부산) [2차]	부산	전문고교, 인문고교, 자매결연 전문고, 자매결연인문고	11.19-26	11.19-26
	예수대[2차]	전북	일반학생, 사회봉사자 및 자녀, 학교장·교사·기독교목회자 추천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층	11.18-26	11.24-26
	예원예술대 [3차]	전북	일반전형, 미술,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11.8-26	11.8-26
	우송대[2차]	대전	일반학생, 영어우수자, 일본어우수자, 솔브릿지	11.19-26	
	중부대[2차]	충남	일반학생,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공무원·교직원·군인· 경찰 자녀, 선·효행자, 전문계고 교출신자, 기타(연예인), 전문계고 교출신자, 농어촌학생	11.19-26	11.19-26
	청운대[2차]	충남	일반학생	11.18-26	11.24-26
	평택대[2차]	경기	일반학생	11.22-26	11.26
	한남대[2차]	대전	일반전형, 글로벌리더	11.19-26	
	한라대[2차]	강원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11.19-26	11.25-26
	한신대[2차]	경기	일반학생	11.22-26	
	한중대[3차]	강원	일반학생,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11.1-26	11.1-26
	협성대[2차]	경기	일반학생, 기타추천자(학교장·교사 이외), 만학도 및 주부	11.19-26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1.27	청주대[2차]	충북	일반전형, 담임교사추천자2, 지역 학생1,2, 국제화, 외국어고졸업자, 기회균형선발, 영어우수자, CJU인재	11.19-27	
	한서대[2차]	충남	일반학생, 외국어(영어)우수자	11.22-27	11.24-27
	호서대[2차]	충남	일반학생, 체육-탁구(남자), 농어 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자, 입학 사정관-벤처프론티어	11.19-27	11.24-27
11.29	가천의과대학 [2차]	인천	재외국민·외국인	11.19-29	11.1-29
			학생부우수자	11.19-29	
	건동대[2차]	경북	일반전형, 체육특기자	11.15-29	11.15-29
	동명대[2차]	부산	인문계고교출신자, 전문계고교 출신자, 자격증/수상실적	11.22-29	
	동아대[2차]	부산	일반전형	11.22-29	
	동의대[2차]	부산	인문계교과성적	11.22-29	
	선문대[2차]	충남	일반학생,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글로벌리더	11.19-29	
	순천향대[2차]	충남	일반학생	11.19-29	
	인제대[2차]	경남	인문계고교출신자	11.22-29	
11.30	경남대[2차]	경남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1.8-30 예정(우편 접수 가능)
12.03	경북외국어대 [2차]	대구	일반학생, 어학·체육특기자, 학교 장·교사추천자, 만학도 및 주부, 전문계고교출신자, 농어촌학생	11.1-12.3	11.1-12.3
12.05	한려대[3차]	전남	일반학생	11.22-12.5	11.22-12.5
12.06	명신대[2차]	전남	일반학생, 체육, 국가유공자 및 자손, 학교장·교사추천자, 만학도 및 주부,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출 신자,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 자, 기회균형선발제	11.1-12.6	11.1-12.6

원서접수 마감일	대학명	지역	전형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 원서접수
12.06	서남대(남원) [3차]	전북	일반학생, 농어촌학생(정원외),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교사 및 자기 추천자	11.10-12.6	11.10-12.6
	서남대(아산) [3차]	충남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교사 및 자기 추천자	11.10-12.6	11.10-12.6
	신경대[3차]	경기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11.10-12.6	11.10-12.6
	영산선학대 [2차]	전남	일반학생, 교역자		9.8-12.6
12.07	갈빈대	경기	일반학생, 교회봉사자, 만학도,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자	9.8-12.7	

* 자세한 일정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신의 수능 예상 점수(원점수)를 가급적 정확하게 계산하라.

자신의 예상 점수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자신의 예상점수와 실제 점수가 정확하게 일치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대부분 1~30점 내외의 오차를 보였다. 정확하게 계산된 수능 예상 원점수의 영역별 강·약 과 활용 영역군별로 강·약을 확인해야 한다.

3. 정시 모집 대학의 지원 대학, 학부 수준을 검토하라.

수능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가능 대학 수준을 대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여타 입시 기관이나 진학지도협의회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략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

준으로 지원가능 대학 수준을 정하고, 정한 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시 기관별로 발행하는 지원 배치 참고표상의 지원 가능 점수가 다를 수 있다. 정보 수집이 핵심이다. 설명회, 인터넷, 정보 책자 등 발로 뛰면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참고로 입시군별 지원 가능한 대학, 학부들은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다. 이때 채점 오차에 따른 등급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4. 지원 가능 대학들의 세부적인 전형 요강을 분석하라.

- 학생부 성적 : 실질 반영비율, 반영 교과목, 교과성적 활용지표(등급 또는 표준편차 활용) 등을 검토하여 학생부 유·불리 정도를 비교해 보자. 반영 교과목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학생부 영향력이 크다. 졸업생의 경우는 지원 희망 대학들의 비교 내신 적용 연도를 검토하도록 한다.
- 수능 성적 : 영역별 자신의 가채점 점수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몇 점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 후 자신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는지 백분위를 쓰는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함께 활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유·불리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역별 조합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 학부를 보다 상세하게 비교 검토하자. 또한 교차 지원 시 가감점에 따른 유·불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 대학별고사 성적 : 논술이나 면접·구술고사 실시 여부, 반영 점수, 기출 문제 유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별고사로 만회할 수 있는 점수는 ± 5 점 내외로 가정하면 무난하다.
- 기타 : 대학, 학부별 입시군, 전형 방법, 모집 인원, 과거 경쟁률 등도 분석하여야 한다. 동일 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학부라고 하더라도 입시군, 모집 인원 등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달라진다.

5. 자신의 장래 목표 및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자.

자신의 장래 목표, 적성, 가치관, 흥미, 부모님의 기대 등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합격부터 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 중에서 입학 후 적성이나 가치관 등이 맞지 않아 다시 공부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지원 희망 대학, 학부를 입시 군별로 2~3개 정도로 압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입시군별 지원전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

입시군별로 지원 대학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시2, 정시 지원 대학 중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대학별고사에 보다 충실히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학마다 대학별고사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전략 포트폴리오는 위험, 적정, 안전 지원 전략 중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입시 군별 지원 전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

7.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최종 성적 발표 전까지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채점 기준으로 지원가능 대학이 정해지면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준비를 해야하는지 여부도 결정된다.

정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은 학생부와 수능에 비해서 반영 비율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시지원시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가능 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선 근처 수험생들의 학생부와 수능 성적은 거의 엇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고사의 성적이 당락을 가

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심층면접과 논술고사 준비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층면접과 논술고사는 단시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 시행전까지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발표 연습을 하며 신문을 규칙적으로 읽어 시사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 최근 TV에서 늘어나고 있는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토론식 면접에도 대비가 되고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를 세워 반박하는 능력도 길러진다. 자신이 취약했던 영역을 꾸준히 학습하고 목표 대학으로부터 최종 합격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

8. 12월 8일 성적 발표 후, 보다 치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자.

12월 8일이 되면, 자신의 영역별 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학진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각 입시 전문기관에서도 최종 발표 성적 결과를 근거로 2011학년도 진학 참고 자료들을 수정 발표하게 된다. 자신의 실제 성적에 따른 지원 전략 수정, 보완은 필수적이다.

9. 기타 관심 사항

가. 기말고사가 있다면 기말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수능 이후의 허탈감으로 기말고사를 대충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내신반영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지 않아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면 입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기말고사는 일단 잘 챙겨 두어야한다.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시라도 재수를 할 경우 또 내년 1학기 수시에 응시할 경우 뼈아픈 후회가 될 수 있다.

나. 출결/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챙겨라.

수능 이후 출결에 신경 쓰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 관리의 차원에서

무단 조퇴, 지각, 결석 처리해 버리면 그대로 출결이 반영되는 많은 대학에서 감점 처리된다. 나태한 생활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생활기록부(정시 반영기준) 마감이 2010년 12월 3일(금)이므로 봉사활동이 전혀 안되어 있는 학생은 그때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단지 입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다. 입시정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웬만한 입시정보는 인터넷을 부지런히 다니면 대부분 구할 수 있지만 입시설명회를 찾아다니고 발로 뛰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남(다른 사람의 지원 경향이나 대학의 예년 입학성적 등)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또한 수능의 반영방법, 반영과목 수, 과목지정, 가중치, 가산점부여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고 지원전략도 달라져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 논술/면접/인적성검사 등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은 기간 정시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대학교나 수시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충실하게 준비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내신과 가채점 결과,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인적성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수능이후 시간 관리 ◆

이제 지난 1년 이상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이 공부를 한 수능준비가 끝났다. 수능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벌써 재수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수능이후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보고 난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것이다. 이를 중심으

로 시간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수능이후 학과에 원서를 내기까지 통상적으로 1달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동안에 어떤 학생은 그동안 자지 못하였던 잠을 실컷 잔다든지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하였던 인터넷 게임을 하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낭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인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학생 여러분의 진로개발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점수와 내신에 기초하여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수능결과가 발표나고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가, 나, 다, 정시, 전문대 등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대학의 무슨 과를 졸업하였다는 것이 상당기간 따라 다닌다. 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느냐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하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학학과 선택을 위한 정보수집에 올인하여야 하겠다. 대학학과선택을 현명하게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대학에 입학은 해놓고 한 학기 다니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재수하고 2학기에 휴학해서 한차례 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인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반수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가 3년제가 아니고 4년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회적인 비용손실이 적지 않다. 또 대학 재학생 중 4명중 1명이 자퇴를 하고 대학생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않은 채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렵게 대학 들어갔는데 계속 다녀 빨리 졸업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대학의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그동안 들인 등록금이 아까워서 계속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하여 수능을 끝낸 학생들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권하고 싶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는 심리검사를 하여 보기를 바란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골라야 한다. 그에 따라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선정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적성을 학과 선택 시 중요시하여야 하겠다. 일선학교에서도 적성은 강조하나 적성검사는 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아는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검사 등을 하기를 바란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가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진로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과 노동부에서 중앙고용정보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워크넷(<http://www.work.go.kr>) 등에서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을 알게 되고 이에 비추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보면 좋은 것이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학교담임교사와 학부모, 상담실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각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실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와 펜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 보아도 현실성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상담을 하면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12년간을 공부만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옆도 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왔다. 이제 1달 동안의 공백기에 자신의 인생을 중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큰 도약을 위하여 잠시 움츠리는 시기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꼭 워크넷의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을 하여 보기를 권한다.

둘째, 자신의 앞으로의 목표를 잡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가진 경우가

고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목표(성공하고 싶
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가 아니고)를 설정하고 그것을 글로 써보고 실천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수십 년 뒤의 모습은 큰 차이가 나고 있
었다.

지금 수험생들은 정말 자신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의 미
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과선택에
서 당장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장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겠다. 그 이유는 앞으로 대학4년
군대 3년 대학원 2년 마치면 사회에는 1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
다. 우리가 건물을 짓자면 설계도가 중요한 것 같이 수험생들이 자신의
인생설계도를 잠정적으로 잡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앞으
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셋째, 자신을 알고 자신이 나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을 한 다음 진학이
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학원에서 제공하는 대학 및 학과별 배치표를 활용
하여 어떻게 하든 명문대학과 인기학과에 진학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인기학과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 직업순이 아닌 것 같다. 자신의 여건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여 나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능시험후 시관
관리도 이를 전제로 하여야 하겠다. 먼저 자신이 정한 목표 분야에서 성
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하
여 찾아보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카페 등에 가입하
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 생생한 이야
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실제로 체험활동을 하여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본다.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직업에 관하여 직업체험(Job Shadowing)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인턴센터, 고용안정센터, 각시도 청소년상담실 등이다. 이들 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직업에 관하여 몇 시간이라도 현장을 둘러보거나 주위 친척, 지역사회 주민 등 아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직업박람회 등을 방문하여 해당분야의 직업인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과가 설치된 학과정보, 대학정보 등을 알아보아야 하겠다.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는데 이런 곳을 그냥 쓱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면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박람회에서 만난 그 대학 그 학과의 담당자나 조교에게서 명함을 받고 이메일을 통하여 질문을 주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방문할 수도 있겠다.

넷째, 이 외에도 디지털사회와 유비쿼터스 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갖자.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이므로 컴퓨터의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능력을 갖도록 하자. 대학생이 되어서 리포트를 발표하는데도 파워포인트는 필요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것을 모르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게 되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또한 이제 국제화 사회에서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인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는 기회를 갖자.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것은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또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보는데 이 또한 좋은 현상이라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대학졸업장이 더 이상 평생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어떤 대학이냐 보다는 어떤 학과에서 실력을 키웠느냐가 중요해진 셈인데, 그런 측면에서 개별 학과들의 특성과 미래의 전망, 그리고 자기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 이거다.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막연한 동경이나 사회적인 평판, 인기도에 의지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나 학교의 강요에 의하여 소위 인기학과에만 지원하려 하는데 지금 20대인 학생들은 앞으로 50년을 직업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정말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갖게 되는 대학학과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의 12년 동안의 공부를 마감하고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수능석차에 의한 줄세우기식이나 경쟁률이 낮은 곳을 지원하기도 하여 나중에 낭패에 빠지지 말고 수험생들이 자신과 학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탐색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 객관식 시험 잘 보는 10가지 비법

1.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라.
2. 한번 적은 답이 틀리지 않은 이상 고치지 말라.
3. 정확히 고를 수 없다면 틀린 것부터 지워나가라.
4. 너무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일수록 다시 한 번 더 보라.
5. 정답이 분명하더라도 보기 예문을 끝까지 읽어라.
6. 질문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라.
7.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8. 질문의 요지나 핵심단어에 밑줄을 그어 표기해라.
9. 문제를 꼼꼼하게 끝까지 탐독해라.
10. 답안지에 정답이 밀리지 않고 제대로 표기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라.

◆ 10월 이후 입시일정 ◆

* 약어

[마감] : 원서접수마감, **[논술]** : 논술고사, **[면접]** : 면접고사,
[적성] : 적성검사, **[서류]** : 서류 제출, **[1단계. 합]** : 1단계 합격자 발표,
[최종. 합]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자	요일	실시 대학 및 전형
10/1	금	[서류제출] : 서울(지역균형(1단계합격자만), 기회균형, 북한이탈주민) [1단계. 합] : 가천의과(가천핵심인재, 지역우선선발, 남자우선선발, 2시), 서울시립1차(전국고교우수인재, 베세토니안)
10/2	토	[논술] : 건국1차(인문:논술우수자, 국제화:2일~3일), 경희1차(자연), 연세1차(사회:9시~11시/인문:13시~15시/자연:16:30~18:30) 상명1차(학생부선택교과우수자, 사회기여자) [면접] : 경원1차(리더십, 영프런티어, 특기자, 교육기회균형:2일~3일) [적성] : 명지1차
10/3	일	[논술] : 건국1차(자연:논술우수자, 국제화:2일~3일), 경희1차(인문), [면접] : 경원1차(리더십, 영프런티어, 특기자, 교육기회균형:2일~3일) [적성] : 강남1차(일반학생, 교회목회자추천, 사회기여자),
10/4	월	[1단계. 합] : 을지1차(성남, 대전), [최종. 합] : 가톨릭1차(일반전형 I)
10/5	화	[서류] : 연세2차(진리, 자유:5일~6일)
10/6	수	[마감] : 명지2차 [서류제출] : 가천의과(1단계합격자소개서제출:가천핵심인재, 지역우선 선발, 남자우선선발) [서류] : 연세2차(진리, 자유:5일~6일) [면접] : 고려1차(지역우수인재:6일~31일)
10/7	목	[1단계. 합] : 건국1차(KU리더십, KU전공적합, KU사랑, KU기초생활수급 자및차상위계층), 한국항공1차(교과성적우수자, 미래항공 우수자, 사회기여자), 홍익(서울/조치원)1차(교과성적우수 자:캠퍼스자유전공, 예능/사회적배려대상자/충청지역고교 출신자(조치원)), 홍익(서울/조치원)2차(예능)
10/8	금	[1단계. 합] : 고려1차(세계선도인재, 과학영재, 국제학부), 연세2차(UIC) [논술] : 서울시립1차(전국고교우수인재) [면접] : 을지1차(성남, 대전:8일~9일),
10/9	토	[논술] : 가톨릭1차(논술우수자:9일~10일), 서강1차(일반전형:9일~10일), 홍익1차(자연:교과성적우수자, 홍익국제화, 수학과학우수자) [면접] : 고려1차(과학영재, 국제학부), 세종(국제화추진, Creative Leadership, 국가유공자:9일~10일), 을지1차(성남, 대전:8일~9일) [적성] : 수월1차(일반학생, 국가유공자녀, 영어우수자:9일~10일)

일자	요일	실시 대학 및 전형
10/10	일	[논술]: 가톨릭1차(논술우수자:9일~10일), 서강1차(일반전형:9일~10일), 홍익1차(인문:교과성적우수자, 홍익국제화, 수학과학우수자) [면접]: 세종(국제화추진, Creative Leadership, 국가유공자:9일~10일), [적성]: 경원1차(일반전형, 사회기여자), 수원1차(일반학생, 국가유공자녀, 영어우수자:9일~10일)
10/11	월	
10/12	화	[최종. 합]: 명지1차
10/13	수	[1단계. 합]: 상명1차(글로벌리더), 서울여대1차, [면접]: 고려1차(체육특기자),
10/14	목	
10/15	금	[최종. 합]: 상명(천안:인문, 자연),
10/16	토	[면접]: 강남1차(글로벌강남, 볼런티어강남, 리더십강남, 챌린지강남:16일~27일), 고려1차(세계선도인재), 상명1차(글로벌리더), 서울시립1차(베세토니안 서울여대1차, 성공회1차, 수원1차(지역우수자), 연세2차(UIC) [적성]: 가천의과1차(적성평가), 세종(학생부우수자, 적성검사우수자:16일~17일),
10/17	일	[면접]: 한국항공1차(교과성적우수자, 미래항공우주리더) [논술]: 한국항공1차(일반학생), [적성]: 강남1차(일학생생)(삭제), 세종(학생부우수자, 적성검사우수자:16일~17일), 한성1차(전공적성우수자),
10/18	월	
10/19	화	[1단계. 합]: 건국1차(KU자기추천, KU차세대해외동포)
10/20	수	[1단계. 합]: 가톨릭(잠재능력우수자, 글로벌리더,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교육기회균등) [면접]: 건국1차(KU사랑, KU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0/21	목	
10/22	금	[최종. 합]: 경원1차, 서울여대1차,
10/23	토	[면접]: 가천의과1차(지역우선선발, 남자우선선발), 가톨릭(잠재능력우수자, 글로벌리더,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교육기회균등:23일~24일) 건국1차(KU자기추천:23일~24일), 명지2차(어학우수자, 수학과학 우수자, 크리스챤리더, 기회균형, 전문계고졸재직자), 한국항공1차(사회기여자:23일~24일), 홍익1차(교과성적우수자:캠퍼스자유전공/사회적배려대상자), 홍익(조치원)1차(교과성적우수자:자연, 캠퍼스자유전공/수학과학 우수자:자연, 캠퍼스자유전공/사회적배려대상자:자연, 캠퍼스자유전공), 동아대1차(기초생활차상위 / 국가공헌자/ 전문계고동일제 / 농어촌전형)

일자	요일	실시 대학 및 전형
10/24	일	[면접]: 가천의과1차(가천핵심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가톨릭(잠재능력우수자, 글로벌 리더,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교육기회균등:23일~24일), 건국1차(KU자기추천:23일~24일), 한국항공1차(사회기여자:23일~24일), 홍익(조치원)1차(교과성적우수자:인 문/홍익국제화/사회적배려대상자:인문), [적성]: 을지1차(성남)
10/25	월	
10/26	화	
10/27	수	[1단계. 합]: 서강1차(일반전형) [면접]: 건국1차(KU리더십, KU전공적합, KU차세대해외동포),
10/28	목	[마감]: 서울시립2차 [1단계. 합]: 고려2차(사회공헌자, 미래로KU) [최종. 합]: 가천의과1차 연세1차(글로벌리더, 조기졸업자)/2차(UIC)
10/29	금	[최종. 합]: 고려1차(과학영재, 국제학부)/2차(World KU), 성공회1차(2시), 상명1차(글로벌리더, 사회기여자), 수원1차, 을지1차(대전),
10/30	토	[면접]: 명지2차(자연), 서강1차(일반전형, 학교생활우수자) [논술]: 명지2차(인문)
10/31	일	[면접]: 서강1차(알바트로수국제화, 글로벌과학인재, 특기자)
11/1	월	[최종. 합]: 가톨릭(논술우수자, 잠재능력우수자, 글로벌리더,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교육 기회균등)
11/2	화	
11/3	수	[조건부. 합]: 한국항공1차
11/4	목	[1단계. 합]: 한성1차(지역인재육성) [최종. 합]: 한성1차(전공적성우수자, 특기자)
11/5	금	[최종. 합]: 강남1차, 서강1차, 을지1차(성남),
11/6	토	[면접]: 고려2차(사회공헌자, 미래로KU), 명지2차(사회기여배려)
11/7	일	
11/8	월	
11/9	화	
11/10	수	[1단계. 합]: 상명2차, 서울여대1차(일반전형:면접형, 기회균형)
11/11	목	
11/12	금	[1단계. 합]: 서울(특기자),
11/13	토	[면접]: 상명2차,
11/14	일	

일자	요일	실시 대학 및 전형
11/15	월	[마감]: 경원2차(18시), 을지2차(성남), [1단계. 합]: 서울시립2차(코스코폴리탄리더, 싸이언스파이오니아). [최종. 합]: 명지2차
11/16	화	[마감]: 강남2차,
11/17	수	[마감]: 한국항공2차,
11/18	목	수학능력시험
11/19	금	[최종. 합]: 상명2차(예체능) [면접대상자]: 연세2차(진리.자유, 사회기여자) [1단계. 합]: 서울시립1차(포텐셜매니아, 국가유공자) [면접]: 동명대1차 (자기추천자, 인문계/전문계)
11/20	토	[면접]: 서울시립2차(코스코폴리탄리더, 싸이언스파이오니아) 서울여대 1차(일반전형: 면접형, 기회균형), 고신대 인문계고전형(의예, 간호) / 고신인재(간호) / 고신사랑(간호), 동명대1차 (인문계출 신자 / 전문계출신자), 동서대 일반계고전형(간호, 치위생, 임상 병리) / 입학사정관전형, 신라대 인문고전형 / 특기자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부산가톨릭1차 자기추천자전형 : 11.20(토)~11.28(일)
11/21	일	[적성]: 강남2차(일반학생), 경성대 1차(전문계고/농어촌)
11/22	월	[마감]: 가톨릭2차, 건국2차, 명지3차
11/23	화	[마감]: 수원2차 [면접]: 동서대 일반계고전형(일반학과) / 전문계고교전형, 동아대 1차 자기추천자전형
11/24	수	[마감]: 성공회2차 [최종. 합]: 서울시립2차(학생부우수선발) [면접]: 동서대 교사추천자전형, 동아대1차 동아Superior 인재전형 / 리더십 / 글로벌마인드전형, 부산외대 영어권2+2복수학위전형 / 인문계고교출신자, 한국해양대 아치해양인재전형
11/25	목	[마감]: 서울시립3차 [논술]: 서울(2시, 특기자: 인문계), 한성2차, [면접]: 서울시립1차(포텐셜매니아:인문), 동서대 특기자 / 자기추천자 / 교회담임목사추천전형, 부경대 일반계고학업성적우수 / 부경글로벌인재 / 리더십 및 봉사실적우수 / 재능우수자, 부산대 교교생활우수자(주도적인재선발전형) : 11.25 ~ 26

일자	요일	실시 대학 및 전형
11/26	금	[면접]: 경원2차(G2+N6), 서울(①특기자:인문,자연,②특기자:자유전공:26일~27일), 서울시립1차(포텐셜매니아:자연), 동의대1차 인문계고전형(한의예 제외), 부경대 농어촌학생 / 전문계고교 출신자 / 미래로전형 / 재외국민 인제대1차 인문계고출신, 과학영재, 농어촌, 전문계고출신, : 11.26 ~ 27
11/27	토	[1단계. 합]: 서울(기회균형,북한이탈주민), [논술]: 고려1차(일반전형:27일~28일), 서강2차(일반전형:27일~28일), 서울여대1차(일반전형:논술형) [면접]: 강남(교육기회균등:~12월4일), 경원2차(G2+N6), 서울(①지역균형, ②특기자: 자유전공:26~27), 연세2차(진리.자유,사회기여자) 홍익2차(미대자유전공,미술계열) 경성대1차 인문계고교 / 사회봉사자 / 국가유공자, 동아대1차 인문계고교 / 경기실적 단품증소지, 동의대1차 전문계고교전형 / 경기실적우수 / 체육특기자, 부경대 부경글로벌인재 / 부경그린인재 / 부경Hope 인재 / 부경마린인재 /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산대 Premier-PNU 전형 / 사회적배려대상 / 농·어촌학생 / 전문계고교출신 / 저소득층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신라대 글로벌리더 / 교사추천자 / 자기추천자전형 [적성]: 가톨릭2차(일반Ⅱ:27일~28일), 고려(세종)2차(일반전형), 수원2차(일반전형:27일~28일), 을지2차(성남),
11/28	일	[논술]: 고려1차(일반전형:27일~28일) 서강2차(일반전형:27일~28일), 숙명2차(논술우수자:28~29일), 동의대1차 인문계고전형(한의예) [면접]: 서강2차(가톨릭고등학교장추천), 홍익2차(미술계열:27일~28일) 동의대1차 임원역임 및 자기추천 / 어학우수자 [적성]: 가톨릭2차(일반전형Ⅱ:27일~28일), 경원2차(일반전형), 수원2차(일반전형:27일~28일)
11/29	월	[마감]: 가천의과2차[논술]: 숙명2차(논술우수자:28~29일)
11/30	화	[최종. 합]: 세종
12/3	금	[면접]: 서울(북한이탈주민)
12/4	토	[면접]: 명지3차(오전, 오후), 서울(기회균형), 서울시립(국가유공자), 부산가톨릭2차 과목우수자전형 / 인문자매교전형

일자	요일	실시 대학 및 전형
12/5	일	
12/6	월	[면접]: 명지3차(옵티머스러너),
12/7	화	
12/8	수	수능 성적 통지일
12/9	목	
12/10	금	[최종. 합]: 가천의과2차, 가톨릭1차(일반전형:간호학)/2차, 경원2차, 고려(세종)1차/2차, 명지3차, 서울시립1차/2차/3차, 수원2차, 을지1차(대전)/2차(성남),
12/11	토	[최종. 합]: 상명1차/2차, 서강2차, 서울, 한국항공1차/2차, 한성1차/2차, 홍익1차/2차
12/12	일	[최종. 합]: 강남2차, 건국1차/2차(2시), 고려1차/2차, 서울여대1차/2차, 연세1차/2차. 성공회2차
12/13	월	
12/14	화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
12/15	수	

IX. 참고자료

1. 대학입시 관련 주요사이트 안내

[공공기관 사이트]

사이트명	부산광역시 대학진학지원센터
주소	http://jinhak.pen.go.kr
소개	부산광역시 대학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주요대학의 입시안 정리와 전형분석, 지원전략, 수능, 대학별고사등의 자료가 매우 풍부하게 제공된다. [입시상담]코너를 클릭하면 부산지역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입시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며, 기획상담과 예약상담도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대학진학지원센터 입시정보 / 학습전략 / 수능/모의고사 / 대학별고사 / 입시상담 / 게시판 / 선생님전용자료실	

사이트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진학정보센터
주소	http://univ.kcue.or.kr
소개	대학입학전형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이트이다. [대학입학정보]코너를 클릭하면 다양한 조건에서 대학별 입학전형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진학진로상담]코너를 클릭하면 대학별 입학전형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며, 신뢰도가 높다.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대학입학정보 진학진로상담 대학교육정보 논술 및 면접 학과 및 진로 게시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정보검색 일반전형 특별전형 학과(모집단위) 및 전공검색 경쟁률 모집시기별 일정 및 모집인원 입시용어 	

사이트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입학정보센터
주소	http://www.kcce.or.kr
소개	<p>전문대학입학전형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이트이다. 메인화면의 아래쪽 오른쪽의 [입학정보센터]를 클릭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p> <p>학기초 각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입시자료가 없는 경우 [입학정보센터]를 활용하면 각 대학의 입시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p> <p>입시전형과 관련된 질문도 가능하며, 각 전문대학의 정보와 학과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p>

사이트명	EBS 인터넷 수능
주소	http://www.ebsi.co.kr
소개	<p>방대한 서버 용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수능관련 동영상뿐만 아니라 논구술 자료도 동영상으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p> <p>[입시정보]-[EBS분석실]에는 입시 시기 별로 주제에 맞게 화면과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고 있다.</p>

사이트명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주소	http://www.jinhak.or.kr
소개	[대학진학정보]-[일반정보]-대입전형용어가 잘 정리되어 있다. [대학진학정보]-[대입전략정보]에는 대입전형분석과 대학 별합격전략이 잘 분석되어 있다. 올해 5월까지의 수도권 주요대학의 입시안 정리와 전형분석, 지원전략 등의 자료가 매우 풍부하게 제공되었다.

사이트명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학부모]
주소	http://www.sen.go.kr
소개	메인화면의 왼쪽 아래 배너 중 [학생/학부모]배너를 클릭 하면 학력평가관련자료화면이 나타난다. 각종 교육청평가 실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아래한글 파일 로 문제지와 정답및 해설지가 공개되고 있다.

사이트명	커리어넷
주소	http://www.careernet.re.kr
소개	<p>진로정보를 파악하기에는 가장 좋은 사이트이다. 메인화면의 가운데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교사 등의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고 클릭을 하면 적합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p> <p>[진로정보보기]-[학과정보]를 클릭하면 검색화면에서 편리하게 대학의 학과를 검색할 수 있다.</p> <p>학과정보를 검색하면 학과전망이나 졸업 후 현황이나 진로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도도 높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진로정보보기 진로상담하기 심리검사하기 진로정보센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직업사전 학과정보 학교정보 자격정보 사진/동영상 진로지도자료 </div>	

사이트명	한국교육과정개발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소	http://classroom.re.kr
소개	<p>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개발원에서 새로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이다.</p> <p>[교육평가]메뉴를 활용하면 학습관련 검사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평가문항 검색도 가능하다.</p> <p>[교육평가]-[대입자료]에는 수능관련자료가 링크되어 있으며 논술관련 자료도 탑재되어 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TEACHING & LEARNING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font-size: x-small;"> 초등교육 교과교육 교육과정 장학연수 교육평가 센터소개 </div> </div>	

2. 2011 수능 방송 시나리오

교시	영역	시간	방 송 내 용
준 비		08:05 이 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감독관께서는 시험관리본부로 오셔서 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한 후 시험실에 입실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생 및 감독관 입실 완료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 위에 붙여 놓은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수험표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1감독관께서는 수험생 유의사항,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는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알려 주십시오. ○ 제2감독관께서는 반입금지물품은 수거하고 수거물품 기록표를 작성, 보관용 봉투에 모두 넣어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관리본부에 인계하십시오. ○ 제2감독관께서는 사인펜 등 필기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 2감독관께서는 수험생 본인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인이 끝난 다음 1교시 미선택자를 복도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감독관께서는 휴대 가능물품외 모든 물품 등 개인소지품을 가방에 넣어 시험실앞으로 제출하도록 지도하시고 시험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교 시	언 어	08:25 (예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교시 예비령입니다. ○ 제1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감독관께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주십시오. ○ 수험생은 1교시 언어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1감독관께서는 답안지에 표시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 문형, 필적확인란을 기입하도록 하고 답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표기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교시	영역	시간	방송내용
제 1 교시	언어	08:35 (준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교시 준비령입니다. ○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계서는 문제지를 수험생 왼쪽에 얹은 채로 배부해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수험생이 문제지 면수가 16면인지 확인하도록 한 다음,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언어영역은 08:40분부터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됨을 주지시키고 08:37분부터 음질테스트 및 안내 방송이 시작되니 조용히 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08:40 (본령)	(타종 없이 계속)
		09:50	○ 제1교시 종료 10분 전입니다.
	10:00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교시 종료령입니다. ○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각각 얹어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 제2감독관계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수량 확인이 끝나면 2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전원인 시험실은 해당시험실에서, 일부인 시험실의 미선택자는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제 2 교시	수리	10:15 이 되면	○ 감독관계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계서는 2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10:20 (예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교시 예비령입니다. ○ 제2감독관계서는 시험실 응시현황표에 의거 2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감독관계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주십시오. ○ 수험생은 2교시 수리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답안지에 표시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 문형, 필적확인란을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교시	영역	시간	방 송 내 용
제 2 교 시	수 리	10:25 (준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교시 준비령입니다. ○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계서는 수험생의 응시문형에 맞는 문제지만을 수험생 왼쪽에 얹은 채로 배부해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수험생이 문제지 면수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수리영역은 '가' 형 16면, '나' 형 8면입니다. ○ 문제지 확인이 끝나면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10:30 (본 령)	○ 제2교시 본령입니다.
		12:00	○ 제2교시 종료 10분전입니다.
		12:10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교시 종료령입니다. ○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각각 얹어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 제2감독관계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수량 확인이 끝나면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시고, 점심식사 후 3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실로 갈 수 있도록 안내 후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제 3 교 시	외 국 어 (영 어)	12:55 이 되면	○ 감독관계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계서는 3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13:00 (예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교시 예비령입니다. ○ 제2감독관계서는 시험실 응시현황표에 의거 3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감독관계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주십시오. ○ 수험생은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답안지에 표시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 문형, 필적확인란을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제1, 2감독관계서는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교시	영역	시간	방 송 내 용
제 3 교 시	외 국 어 (영 어)	13:05 (준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교시 준비령입니다. ○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계서 문제지를 수험생 왼쪽에 얹은 채로 배부해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수험생이 문제지 면수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외국어(영어) 영역은 8번입니다.
		13:10 (본 령)	(타종 없이 계속)
		14:10 이 되면	○ 제3교시 종료 10분전입니다.
		14:20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교시 종료령입니다. ○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각각 얹어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 제2감독관계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수량 확인이 끝나면 4교시를 미션택한 수험생은 대기실로 갈 수 있도록 안내 후,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제 4 교 시	사 회 · 과 학 · 직 업 탐 구	(14:35) 이 되면	○ 감독관계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계서는 4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14:40 (예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교시 예비령입니다. ○ 제2감독관계서는 시험실 응시현황표에 의거 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 3감독관계서는 답안지 및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를 배부해 주십시오. ○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1감독관계서는 답안지에 표시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 필적확인란을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특히 제1감독관계서는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고, 제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 제4교시 문제지는 홀·짝수형의 구분 없이 단일 유형입니다.

교시	영역	시간	방 송 내 용
제 4 교 시	사 회 · 과 학 · 직 업 탐 구	14:45 (준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교시 준비령입니다. ○ 제2, 3감독관계서는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4과목 응시 수험생에게, 문제지 전 세트를 배부하십시오. ○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며, 제2,3감독관계서는 문제지를 수험생 왼쪽에 얹은 채로 배부해 주십시오. ○ 3과목이하 선택시험실 감독관계서는 별도의 타종없이 답안지,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 문제지를 배부하여야 하므로 배부 시각에 유의하십시오. ○ 수험생은 제1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얹어놓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14:50 (본 령)	○ 제4교시 첫 번째 본령입니다.
		15:12 (방송하 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과목 선택 시험실 감독관은 답안지 및 문제지 보관용 빈봉투를 배부하십시오. ○ 수험생은 4교시 답안지인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표기하십시오.
		15:15	○ 4교시 중 첫 번째 시험 종료 5분전입니다.
		15:17 (방송하 지 않음)	○ 3과목 선택 시험실 감독관은 문제지 전 세트를 배부하시고 제1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얹어놓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직업탐구영역 포함)
		15:20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첫 번째 종료령입니다. ○ 제2감독관계서는 문제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 하십시오, 확인 후 수험생들이 선택한 순서에 맞는 해당과목 문제지를 꺼내어 책상위에 얹어 놓도록 지도하십시오.
		15:22 (본령)	○ 4교시 두번째 본령입니다.
		15:44 (방송하 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목 선택 시험실 감독관은 답안지 및 문제지 보관용 빈봉투를 배부하십시오. ○ 수험생은 4교시 답안지인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표기하십시오.
		15:47	○ 4교시 중 두 번째 시험 종료 5분전입니다.
		15:49 (방송하 지 않음)	○ 2과목 선택 시험실 감독관은 문제지 전세트를 배부하시고 제1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얹어놓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도록 지도하십시오.

교시	영역	시간	방 송 내 용
제 4 교 시	사 회 · 과 학 · 직 업 탐 구	15:52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두번째 종료령입니다. ○ 제2감독관계서는 문제지를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 후 수험생들이 선택한 순서에 맞는 해당과목 문제지를 꺼내어 책상위에 얹어 놓도록 지도하십시오.
		15:54 (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세번째 본령입니다.
		16:16 (방송하지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목 선택 시험실 감독관은 답안지 및 문제지 보관용 빈봉투를 배부하십시오. ○ 수험생은 4교시 답안지인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포기하십시오.
		1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세 번째 시험 종료 5분전입니다.
		16:21 (방송하지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목 선택 시험실 감독관은 문제지 전세트를 배부하시고 제1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얹어놓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도록 지도하십시오.
		16:24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세번째 종료령입니다. ○ 제2감독관계서는 제3교시 문제지를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 후 수험생들이 선택한 순서에 맞는 해당과목 문제지를 꺼내어 책상위에 얹어 놓도록 지도하십시오.
		16:26 (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네 번째 본령입니다.
		1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중 네 번째 시험 종료 5분전입니다.
제 4 교 시	사 회 · 과 학 · 직 업 탐 구	16:56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교시 네번째 종료령입니다. ○ 제2, 3감독관계서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이 응시하지 않은 선택과목 문제지도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 채로 회수하여 주십시오. [4교시로 종료되는 시험장 또는 시험실] ○ 제2, 3감독관계서는 회수한 반입금지물품을 복도감독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수험생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감독관계서는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수험생을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 후 퇴실시켜 주십시오. [5교시로 종료되는 시험장 또는 시험실] ○ 문제지 및 답안지 수량이 이상이 없으면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교시	영역	시간	방 송 내 용
제 5 교 시	제 2 외국어 / 한문	(17:10) 이 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관께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께서는 5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17:15 (예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교시 예비령입니다. ○ 제1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감독관께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주십시오. ○ 제2감독관께서는 시험실 응시현황표에 의거 5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수험생은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1감독관께서는 답안지에 표시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 필적확인란을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제5교시 문제지는 홀·짝수형의 구분 없이 단일 유형입니다.
		(17:20) (준비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교시 준비령입니다. ○ 수험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며, 제2감독관께서는 문제지를 수험생 왼쪽에 얹은 채로 배부해 주십시오 ○ 제1감독관께서는 수험생이 문제지 면수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24면으로 홀·짝수형 구분 없이 단일유형입니다. ○ 문제지 확인이 끝나면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17:25 (본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교시 본령입니다.
		(17:75) 이 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교시 종료 10분전입니다.
		18:05 (종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교시 종료령입니다. ○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각각 얹어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 제2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2감독관께서는 회수한 반입금지물품을 복도감독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수험생에게 배부하여 주십시오. ○ 제1감독관께서는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 후 퇴실시켜 주십시오.

발 간 위 원

■ ㄱ문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 자 익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장	김 동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지원담당장학관	윤 재 희

■ 기획·편집위원

대학진학지원센터 소	장	곽 우 신
대학진학지원센터 교육 연구 사		권 혁 제, 김 영 원
용인고등학교 교감	박만제	개금고등학교 교사 전희선
해운대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기진	명호고등학교 교사 김현구
대동고등학교 교사	김재원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옥화
예문여자고등학교 교사	황영규	부산진여자고등학교 교사 서병주
경혜여자고등학교 교사	천복현	주례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혜옥
부산개성고등학교 교사	김승욱	예문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형길
부산남고등학교 교사	김미래	부산서여자고등학교 교사 장난심
동아고등학교 교사	정병욱	경남고등학교 교사 이영숙
금명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윤희	이사벨고등학교 교사 유경춘
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전기범	동아고등학교 교사 장영주
경혜여자고등학교 교사	손병호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교사 조병학
성일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은령	계성정보고등학교 교사 장정석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김선기	대연정보고등학교 교사 박귀임
경남고등학교 교사	박원주	동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송정환
부산고등학교 교사	최인균	삼락중학교 교사 현연숙

2011 대입수능 D-30 매뉴얼

S 1 Plus D-시리즈 III

발행일 : 2010. 10. 19.
 발행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센터
 Tel. (051) 866-2114, 860-6199
 인 쇄 : 효민디앤피 Tel. (051) 807-5100
